

20
2004-2024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9 772383 836002
ISSN 2383-8361

artv 2024 10+11 vol.177 성남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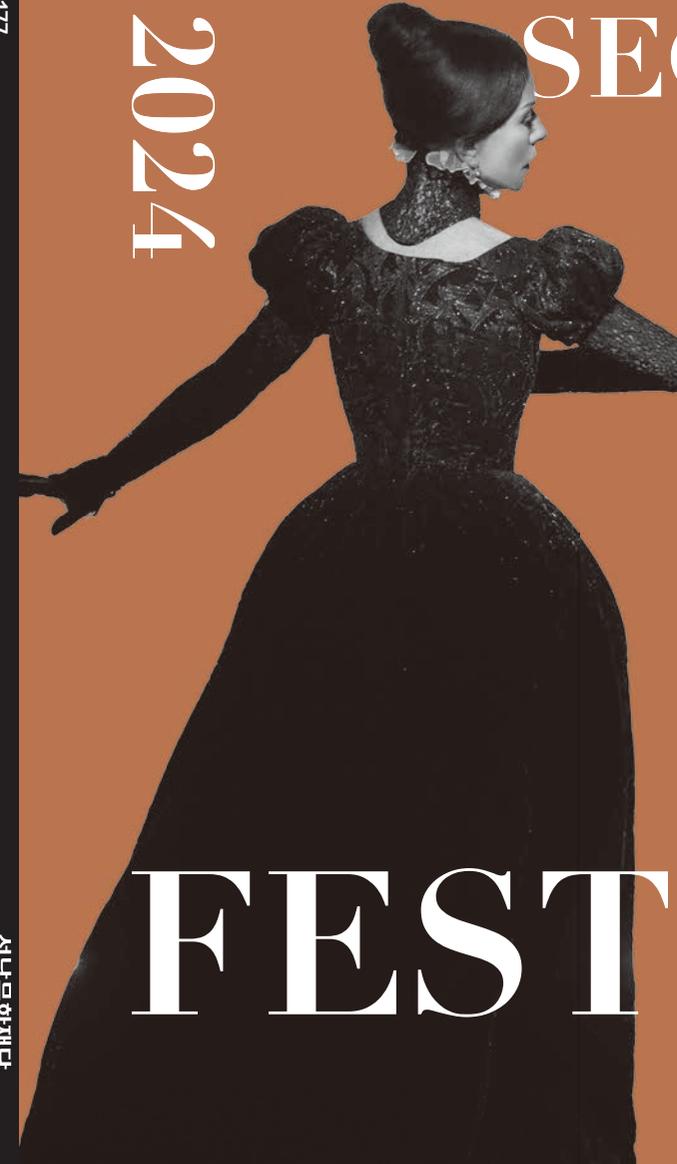
2024 October & November
Vol.177

ar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2024

SEONGNAM



- 특집 2024 성남페스티벌
- 인터뷰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 양정웅
- 미리보기 이자벨 워페르의 <메리 스투어트>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
- 아티스트 토크 연출가 로버트 윌슨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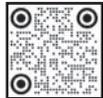
Contents

2024 10+11

Vol.177

SEONGNAM FESTIVAL	
미리보기 2024 성남페스티벌	04
인터뷰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 양정웅	12
칼럼 페스티벌의 경제학	18

표지 작품 이미지
서수영 작가(42p)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2024년 10+11월호
통권 177호(비매품) 2024년 10월 4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서정림 | 편집인 장동환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V I E W	
미리보기 1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투어트>	26
미리보기 2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	32
미리보기 3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36
미리보기 4 2024 성남의 얼굴: REGATHER	38
미리보기 5 2024 성남작가조명전 5 <서수영: HERITAGE CODE>	42
미리보기 6 2024 지역예술가교류전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	44
다시보기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46
아티스트 토크 연출가 로버트 윌슨	52



C U L T U R E +	
피플 배우 이자벨 위페르	60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샤인>과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	64
트렌드 진화하는 캐릭터 IP 마케팅	68
생활 속 디자인 자동차에 대하여	74

S E O N G N A M +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84
10+11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89
SNART NEWS	96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100



SEONGNAM SEONGNAM

Immersive Emotions

FESTIVAL FESTIVAL

- 04. 미리보기 | 2024 성남페스티벌
- 12. 인터뷰 |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 양정웅
- 18. 칼럼 | 페스티벌의 경제학



2024

성남페스티벌

2024.10.5.-10.13.

SPECIAL MIXING FUN WITH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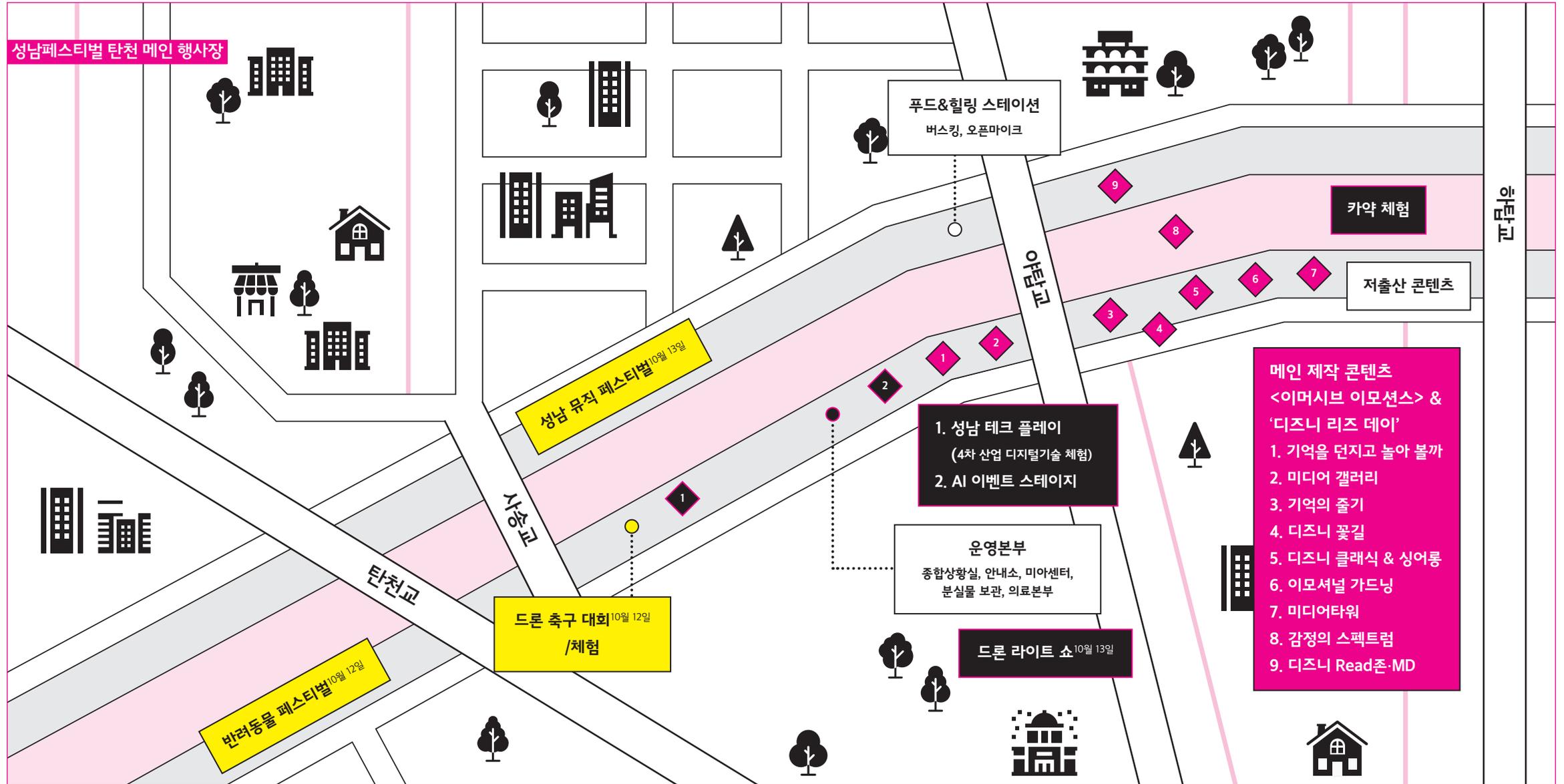
ENERGETIC CITY

일상이 축제가 되는 곳,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2024 성남페스티벌

경남 남해군 성남문화재단 수동권택농원장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축제,
2024 성남페스티벌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성남 곳곳을 찾아온다.
AI, 로봇 등 성남이 지닌 4차 산업 동력을 기반으로
첨단 산업의 역동적인 에너지, 그 속에 자리한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문화예술 인프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도시 성남의 매력들이
새로운 차원의 융복합 예술로 펼쳐진다.



영국의 도시 브랜드 전문가 사이먼 안홀트 Simon Anholt는 도시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곳과 비교되는 고유의 독특한 매력, '경쟁적 정체성(competitive identity)'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도시 성남을 대표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로 대변되는 성남의 창조문화 산업과 기술 인프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탄천의 물줄기와 푸른 자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성남문화재단이 가꿔 온 문화예술의 토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성남의 매력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성남페스티벌이다. 성남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 가는 4차 산업의 동력과 미래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술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더해진 콘텐츠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펼쳐진다. 연극 <맥베스> <파우스트>,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등 장를 넘나드는 경이로운 무대를 구현해 온 국내 대표 연출가 양정웅이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함께한다.

Special Mixing: 성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2024 성남페스티벌을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pecial Mixing’. 성남페스티벌이 준비한 기획 프로그램이다. 디즈니코리아와 함께 선보이는 <인사이드 아웃 2> 테마의 <이머시브 이모션스 Immersive Emotions>의 세계가 메인 콘텐츠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협업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도록 디즈니 스토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디즈니의 글로벌 캠페인 ‘디즈니 리즈 데이 Disney Reads Day’와 연계해 현장에서 디즈니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로 채워진다.

메인 콘텐츠 <이머시브 이모션스>는 감정을 표현한 캐릭터로 구성된 몰입형 전시와 공연을 다채롭게 결합해 관람객들이 각기 다른 문화예술과 첨단 기술의 공간을 이동하며, 축제의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즐기는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선사한다. <인사이드 아웃 2>의 캐릭터를 활용한 여러 존 Zone과 프로그램을 통해 성남의 다양성을 속속들이 알아보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며 축제의 현장을 즐길 수 있다. 성남의 중심을 따라 흐르는 도시의 숨결이자 심터인 탄천은 올해 축제에서도 자연을 품은 열린 예술 공간으로 변신해 모두를 초대한다.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들도 기다린다. AI 이벤트 스테이지는 첨단 기술의 도시 성남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전한다. AI 바둑 로봇과의 대국 체험, e스포츠게임 선수단 시연 및 대결, 생성형 AI 프로그램 활용 등 기술의 발전을 생생한 체험으로 즐길 수 있다. 축제를 찾은 관객들이 먹거리와 휴식을 즐기는 ‘푸드 & 힐링 스테이션’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시민유튜브제작단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 ‘오픈마이크’ 등 아가자기한 소규모 스테이지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일대도 지나치지 말자. 올가을, 성남시의 특화거리 프로젝트에 맞춰 공연장 앞 버스 정류장과 광장이 푸른 잔디와 계단식 공간을 갖춘 열린 심터로 새롭게 변신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없는 이곳에서는 10월 9일(수) 오후 4시부터 한국과 프랑스, 호주의 예술가들이 <한·프·호 지역예술가 스페셜 제작 공연>을 꾸민다.

한강에서 카약을 타는 레포츠가 부러웠던 이들이라면 카약 체험 이벤트를 기억해 두자. 10월 12일(토)과 13일(일) 오후 10~17시에 탄천 하탑교 일원에서 진행되는 카약 체험은 현장 접수로 이용 가능하며, 2인용 카약 30대가 운행 예정이다.

성남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p>탄천(탄천종합운동장 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제작콘텐츠 <이머시브 이모션스>(11-13일) • 푸드&힐링스테이션(11-13일) • AI 이벤트 스테이지(AI 바둑, 로봇댄스)(11일) • 성남 테크 플레이(VR, 드론, 로봇, UAM 등 4차 산업 디지털기술 체험)(11-13일) • 성남오픈마이크(11-12일) • 버스킹, 탄천예술로(11-12일) • 성남페스티벌 공모 선정작 공연 - 아띠 클래식 <아띠 오케스트라>(11일) - 연희공방 음악강쟁 <옴니버스 음악강쟁 인형극장>(13일) • 카약 체험(12-13일) • 드론 라이트 쇼, 성남 뮤직 페스티벌(13일) • 제1회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12일) • 반려동물페스티벌(12일) 	<p>중앙공원 야외공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공연: 파크콘서트(5일) • 성남 갓 탤런트 페스티벌(9일) • 사랑방문화클럽축제(12일) • 드론딜리버리 체험(5-6일, 12-13일) <p>분당구청 앞 문화의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페스티벌 공모 선정작 공연(6일) - 코리아주니어빅밴드 <하모니 성남! 코주빅과 함께 재즈에 빠지다> 	<p>울지대학교 성남 캠퍼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크닉 콘서트(8일) <p>성남시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회 성남시청소년년과의과학축제(5일) •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11일)
<p>성남글로벌융합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부장기술융합 비즈밋업데이(8일) 	<p>위례스토리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례생활문화축제(12일) <p>희망대근린공원 야외공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페스티벌 공모 선정작 공연(9일) - DSV SOUND <메리 성남! 이 도시가 만든 음악들> - KUNST <뻬fun한 영화 음악 콘서트> 	<p>성남아트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1주년 성남 시민의날 기념식(8일) • 성남아트센터전(5-13일) • 성남페스티벌 공모 선정작 공연(8일) - 성남 이무술 집 터 다지기 보존회 <성남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 한·프·호 아티스트 즉흥협업프로젝트(9일) • 성남미디어센터 야외영화상영회(9일)
<p>판교콘텐츠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페스티벌 공모 선정작 공연 - 블루댄스 씨어터2 <시간을 달려서>(7일) - 베니앤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커피 칸타타>(10일) 	<p>성남종합운동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라이트 쇼, 성남뮤직페스티벌(6일) 	<p>울동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13일) <p>산업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반도체설계(팹리스) 아카데미 매칭데이(7일) • 2024 성남AI-4차산업육성전략포럼(7일)

함께 즐길 때 더 즐겁다, 'Fun with Arts'

두 번째는 'Fun with Arts'.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다.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의 파크 콘서트(10월 5일)와 을지대학교에서 즐기는 피크닉 콘서트(10월 8일)에서는 다이내믹 듀오, 원슈타인, 김완선^{파크}, 전인권밴드, 부활^{파크}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대중가수들의 다이내믹한 무대가 축제 그 이상의 뜨거운 열기를 선사한다.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조각 작품을 소개하는 성남큐브미술관의 <2024 성남의 얼굴전>은 실내 조각전(10월 5일~13일 성남큐브미술관)과 야외 조각전(10월 5일~12월 5일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으로 관객을 만난다. 새롭게 조성된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특화거리)에서 산책처럼 즐길 수 있는 야외 조각전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각 작품을 접하며 예술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시민과 즐기는 버스킹 공연 '버스킹, 탄천 예술로'(10월 11일~13일 탄천), 시민 생활 문화동호회의 '사랑방문화클럽축제'(10월 12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입주작가의 오픈스튜디오와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는 '위례생활문화축제'(10월 12일 위례 스토리박스), 시민유투브제작단의 생생한 축제 정보 생방송 '성남오픈마이크'(10월 13일 탄천) 등 크고 작은 예술 프로그램을 마주할 수 있다.

축제로 더욱 활기차게, 'Energetic City'

세 번째, 'Energetic City'다. 성남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물처럼 즐겨 보자. 성남시립예술단과 시민예술단의 야외공연 '성남 갓 탤런트 페스티벌'(10월 9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금난새 지휘자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가을 저녁 클래식 공연과 드론 라이트 쇼(10월 6일 성남종합운동장, 10월 13일 탄천), VR·드론·로봇 등 디지털 산업 기술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는 4차 산업 디지털기술 체험 '성남 테크 플레이'(10월 11일~13일 탄천),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와 체험(10월 11일~13일 탄천) 등이 이어진다. 특히 드론 라이트 쇼는 지난해 제1회 성남페스티벌에서도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이벤트다. 1,500대(성남종합운동장)와 2,200대(탄천종합운동장)의 드론으로 그리는 환상적인 공중 퍼포먼스가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성남의 예술가들이 뜬다

성남페스티벌 기간에는 성남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예술인들의 공연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모두 올해 페스티벌을 위한 공모 프로그램을 거쳐 선정된 지역예술가들의

대표작들이다. 서현부터 아탑까지 자전거를 타고 탄천을 달리며 연주를 들려줄 아띠 클래식 <아띠 오케스트라>, 전통연희에 기반한 창작 인형극을 선보이는 연희공방 음마갱깽 <옴니버스 음마갱깽 인형극장>, 코리아주니어빅밴드 <하모니 성남! 코주빅과 함께 재즈에 빠지다>, 블루댄스 씨어터 2 <시간을 달려서> 현대무용, 베니앤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커피 칸타타> 음악극, DSV SOUND <메리 성남! 이 도시가 만든 음악들>, KUNST <뽀뽀한 영화 음악 콘서트>,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기 보존회의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까지, 우리 전통예술과 무용,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탄천 메인 행사장 외에도 판교 콘텐츠 거리, 희망대근린공원 야외공연장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 곳곳이 축제 현장으로 변신한다.

오늘의 축제, 내일의 예술을 만나다

성남페스티벌은 시민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축제다. 10월 5일부터 탄천 그리고 매일 지나던 성남의 곳곳을 한번 더 둘러보자.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이 모두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껏 만나지 못한 내일의 예술과 기술 그리고 성남의 이야기가 함께할 그곳으로 모두를 초대한다.

성남페스티벌 세부 정보 | 축제 공식 홈페이지 www.snart.or.kr/festival
인스타그램 | @seoungnamfestival

2024 성남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탄천]

	메인 제작 콘텐츠 <이머시브 이모션스>
10월 11일~13일 ^{14시~20시}	AI 이벤트 스테이지(AI 바둑, 로봇댄스) 성남 테크 플레이(4차 산업 디지털기술 체험) 푸드 & 힐링 스테이션
10월 11일 ^{14시} , 13일 ^{15시}	'2024 성남페스티벌' 공모 선정작 공연 - 아띠 클래식 <아띠 오케스트라>(11일) - 연희공방 음마갱깽 <옴니버스 음마갱깽 인형극장>(13일)
10월 11일~12일 ^{14시~20시}	성남오픈마이크 / 버스킹, 탄천 예술로
10월 12일~13일 ^{10시~17시}	카약 체험
10월 12일 ^{8시 30분~16시 30분}	제1회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
10월 12일 ^{11시~16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10월 13일 ^{19시~20시}	성남 뮤직 페스티벌
10월 13일 ^{20시~20시 15분}	드론 라이트 쇼

* 장소별 상세 프로그램은 성남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의 예술을 만나다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 양정웅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지금 동시대의 창작자들 중 예술의 경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넘나드는 탐험가가 있다면, 바로 연출가 양정웅이 아닐까. 셰익스피어부터 올림픽 무대까지, 양정웅은 언제나 독보적인 상상력과 미장센으로 동양과 서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왔다. 국내 연극계의 대표 연출가로 출발해 오페라와 무용, 영화, 미디어아트와 초대형 퍼포먼스까지, 그 어떤 틀에도 규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양정웅의 도전이 성남페스티벌에서 펼쳐진다.

제2회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축제와 함께하게 되셨는지요?

성남은 첨단 기술과 IT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 발달한 도시라는 점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성남아트센터에서는 극단 여행자 시절 공연을 선보인 적도 있고, 관객으로도 종종 찾던 곳이죠. 그런 시간 속에 인연이 있던 분들, 성남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기꺼이 참여하게 됐어요. 지난해 제1회 성남페스티벌에서 탄천에 펼쳐진 아름다운 무대를 저 역시 인상 깊게 봤던 터라, 그런 멋진 페스티벌과 함께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올해 성남페스티벌은 탄천을 중심으로 곳곳의 야외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연 출가로서 도시 성남의 어떤 매력, 가능성에 주목하셨는지요?

성남이 지닌 폭넓은 다양성과 그 속의 다채로움이죠. 올드타운과 판교테크노벨 리, IT와 문화예술, 첨단 산업과 자연처럼 상반된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빛어 내는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했어요. 특히 탄천은 그 자체로 무척 매력적인 공간입 니다. 저 역시 시간이 날 때면 종종 탄천을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데요, 올 해 축제에서도 탄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천이 그저 하나의 공연을 위 한 배경이라기보다는, 장소특정적 연극site-specific theater처럼 그 자체로 특별한 경 험의 공간이 되길 바라요. 시민과 방문객들이 탄천의 곳곳을 거닐며 축제가 주는 새로운 경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 무용 연출까지 장르를 넘어서 활동을 보여 주고 계시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총연출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 회식 총감독이라는 두 번의 올림픽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르와 규모는 다 르지만 이 작업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작업 철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르와 무관하게 언제나 시각적인 연출과 내러티브를 중심에 둡니다. 평창동계 올림픽의 한국적 캐릭터 '인면조'와 드론, 미디어아트와 같은 첨단 기술이 세계인 들에게 화제가 되었듯, 어떤 서사나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연출과 완성도 높은 미장센을 통해 관객에게 감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해요. 이번 페스티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남페스티벌의 메인 제작 콘텐츠 <이머시브 이모션스Immersive Emotions>는 무대 위 의 공연 한 편이 아닌, 다양한 예술 장르와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라고 들었습니다.

융복합과 IT, AI, 4차 산업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올해 성남페스티벌 취지에 맞춰 메인 콘텐츠도 변화를 주고자 했어요. 저는 스타 주인공 한 명을 내세우기보다 관객이 상호 작용하며 참여하는 이머시브immersive 공연이 미래지향적인 대세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공연은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트렌드는 물론, 관객이 인 스타그램과 틱톡에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죠. 그래 서 성남페스티벌 역시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객과 무대를 구분 짓는 대신 다채로 운 참여형 융복합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드넓은 탄천 공간을 펼쳐 놓고 관람객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공간을 선택하고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들로 사랑받는 글로벌 슈퍼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를 <이머시브 이모션스> 콘텐츠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이색적입니다.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성남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축제, 전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슈퍼IP가 떠올랐죠. 막강한 브랜드 경 쟁력과 입체적인 세계관을 지닌 슈퍼IP의 중요성이 문화예술은 물론 산업 분야 전반까지 확대되는 지금, 성남이야말로 이를 기반으로 한 페스티벌이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게임, 웹툰 등 성남의 다양한 IP 기업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IP를 창 조하는 중심이 될 테니, 이 축제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해요. 세 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슈퍼IP의 친근함이 다양한 세대는 물론 글로벌 관광객까 지 유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페스티벌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연극의 텍스트 측면에서는 셰익스피어와 괴테 등 고전의 재해석을 고민하지지 만, 이를 무대 위에 구현하는 방식과 창작 전반에서는 디지털과 뉴미디어를 폭넓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2022년 울산시립미술관에서는 <X미인도>를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모습을, <파우스트> <맥베스>에서도 LED 패널 등을 활용 한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비주얼을 보여 주셨죠. 성남페스티벌에서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시각적인 요소들이 기대되는데요, 연출가로서 미디어아트의 어떤 점에 매 력을 느끼시는지요?

고전은 현재성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다 는 미덕이 있죠. 저는 형식과 내용 모두 비선형의 내러티브를 선호하는데, 전통 과 현재와 미래적인 세계관이 공존하는 콘텐츠의 구상에 미디어아트와 레이저아 트, 게임적인 요소들을 즐겨 활용해요. 성남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에서도 IT와 4차 산업, AI 등 성남시의 미래적인 모습을 많이 담아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성남페스티벌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또 탄천에 펼쳐질 메인 콘텐 츠 존zone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현장에서 직접 콘텐츠를 선택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자유롭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형태의 관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인 존은 무대의 결과물을 마주하는 기존의 관람 형태가 아닌 몰입형·참여형 콘텐츠인 만큼, 특 정한 존을 추천하기보다 전체 존을 고루 경험하는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전 시·퍼포먼스·설치미술 등 다양한 형태와 조합으로 꾸며진 각각의 존을 둘러보면



**우리 모두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축제,
감각과 직관으로 즐기는
새로운 예술과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서 전체 공간을 직조하고, 때로는 n차 관람으로 관람 순서를 바꿔 보기도 하면서 저마다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바라는 풍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축제, 감각과 직관으로 즐기는 새로운 예술과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2021년에는 영화감독으로도 데뷔하셨어요. 영화는 무대예술과는 또 다른 메커니즘의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영화는 하루의 현장을 위한 프리프로덕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두 번의 올림픽 무대와 그간의 공연에서 이 과정을 꼼꼼히 챙겨 온 경험이 밑거름이 됐어요. <더 박스>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로드 무비라 로케이션 비중이 큰 점 차이가 있었지만, 이 역시 야외 공연 경험에서 조금이나마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죠. 제작 과정보다는 오히려 편집 부분에서 공연과는 다른 새로움을 느꼈는데요, 공연은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족함을 보완해 갈 수 있는 반면, 영화는 한 번의 슈팅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후반 작업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부담이

컸어요.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말처럼 배우의 연기, 로케이션 등 그 순간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예술이라는 점이 새로웠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다른 장르에도 관심이 많아요. 모든 장르를 직접 경험하고, 각각의 장점을 모아 최상의 결과물로 빚어내는 꿈을 꾸죠. 예술을 통해 축적되는 경험의 산물들, 가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도하고픈 도전에 대한 상상, 새로운 형식들, 익숙한 프로시니엄proscenium 무대에서 향유자로 경험하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공연들... 이 모두가 저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미지의 세계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제는 문화예술과 창작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가 지닌 역기능과 그로 인한 이견도 있겠지만, 저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가 있다면 이를 막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순기능과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디지털과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 예술가의 사명감으로 그 해답을 찾아 가고 싶죠. 성남페스티벌에서도 기술과 과학의 요소들이 공연예술과 빚어내는 확장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작업이 있으신지요?

하나의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가치를 확장하며 수많은 이들을 만나는 슈퍼IP가 미래 예술 콘텐츠의 중심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슈퍼IP를 공연·전시·미디어아트 등 미래지향적 콘텐츠로 만드는 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준비 중인 <유미의 세포들> 뮤지컬도 그런 작업 중 하나죠. 디지털 시대의 테크놀로지가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인간과 어떤 접점을 갖고 발전할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예술적 집시' 혹은 '콘텐츠적 집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어떤 경계도 설정하지 않고 영역과 장르와 한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상상해 만들 수 있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로서 많은 작업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문화의 힘’

페스티벌의 경제학

글 이해운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산업부와 문화부, 베를린 토크쇼 등을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재테크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 분야를 경제 산업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주 가장 핫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 ‘돈이 되는 여기 할해’도 운영 중이다.

“주여, 아프리카를 구원하소서/영광을 높이 올리소서.”

지난 8월 25일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제2회 원유니버스페스티벌OUF2024’

몇 시간 전부터 무대 앞을 지키고 있던 관객들이 갑자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국기를 흔들며 국가를 불렀다.

이들이 기다리는 가수는 바로 오늘의 헤드라이너, 제2의 아리아나 그란데라 불리는 ‘타일라다’.

2002년 남아공에서 태어나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7위에

그래미 베스트 아프리카인 뮤직 퍼포먼스상까지 거머쥔 소녀.

‘아프리카의 공주’로 불리는 그녀의 방한 소식에 한국에 사는 현지 팬들이 모두 모였다.

전국 어디에서 페스티벌이 아니면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던 친구가 말한다.

“네가 남아공 사는데 방탄소년단이 왔다고 해 봐. 연차 내고 달려 나올걸?”



2024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인천시

“난 맞서 싸울 거야/일곱 국가의 군대는 날 막을 수 없어.”

8월 3일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틀째 밤. 헤드라이너로 오른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가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하자 관객들은 떼창을 시작했다. 관객석 페스티벌 깃발들을 중심으로 슬램slam-관객들끼리 몸을 부딪치며 노는 행위도 발생했다. 이 노래는 잭 화이트가 어릴 적 ‘구세군Salvation Army’을 ‘일곱 국가의 군대seven nation army’로 잘못 알아들은 것에서 유래한 곡이다. 영국 싱글 차트 6위로 데뷔했고, 뇌리에 박히는 베이스라인으로 스포츠 응원가로 많이 쓰인다. “워~워 워워워 워~워.” 축구 경기장에서 응원가로 부르던 노래를 원곡자와 함께 부를 수 있다니! 페스티벌이 아니면 이런 짜릿한 순간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전국은 페스티벌로 더욱 뜨거웠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24’ ‘월드디제이페스티벌’ 같은 EDM(전자음악) 페스티벌, ‘워터밤’ ‘송크란S20 Korea’ 같은 워터 페스티벌, 연예 기획사 하이브 내 레이블이 총출동하는 ‘위버스콘’, 맥주 브랜드 카스 주최 ‘카스쿨 페스티벌’까지 장소와 장르도 다양했다. 거의 매주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휴가를 페스티벌로 가는 ‘페스티벌 바캉스’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가을 페스티벌 라인업도 만만치 않다. 10월 4일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올림픽공원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10월 18일부터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10월 26일부터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등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성남시는 10월 5일부터 양정웅 연출가와 함께 다양한 융복합 문화예술 콘텐츠로 꾸미는 제2회 성남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다.

페스티벌은 어떻게 운영되고 수익을 낼까? 페스티벌이 지역에 가져오는 경제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페스티벌 경제학’을 분석했다.

메인 스폰서를 잡아라

보통 뮤직 페스티벌의 티켓비는 1일 10만 원 안팎이다. 별도의 좌석 대신 공연장 곳곳에 dot자리를 펴고 앉거나 무대 앞에 서서 공연을 즐긴다. 대략 낮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출연진이 무대에 오르고, 관객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 다만 티켓이 비교적 고가임에도 이것만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아서, 유료 관객 수가 5만 명이었던 월드디제이페스티벌도 순수익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섭외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페스티벌의 시작은 메인 스폰서를 잡는 것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원유니버스페스티벌의 메인 스폰서는 ‘아디다스’, 워터밤은 ‘스프라이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KB 국민카드’다. 펜타포트는 원래 KB국민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타 카드도 가능한 대신 KB국민카드 사용 시 일정 부분 할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올해 펜타포트 관객 수는 15만 명. 이들이 락페를 더욱 저렴하게 즐기기 위해 KB국민카드를 신청했다면, 단기간 카드 신청자 수로는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스티벌하면 빠질 수 없는 ‘술’ 회사도 주요 스폰서다. 올해 월드디제이페스티벌 맥주 후원사는 버드와이저, 8월 18일 서울 압구정 로코 콤플렉스 뒷마당에서 열린 ‘백야드 페스티벌’의 후원사는 테킬라 1800이었다. 레몬 한 조각, 약간의 소금과 함께 테킬라 한 잔을 마시고 국내 대표 래퍼들의 공연을 즐기는 기분이란! 미 LA 힙합 가수 저택에서 열린 프라이빗 파티에 초대받은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수천억 원대 경제 유발 효과

페스티벌에서는 음악만 듣지 않는다. 보통 음식물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안에서 해결한다. 맥주와 하이볼 등은 1만 원 안팎, 음식은 1~2만 원

선이다. 타 지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의 경우 숙박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페스티벌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 인천시는 매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를 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360억 원, '워터밤 속초'가 속초 지역에 일으킨 경제 효과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올여름에는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페스티벌이 열렸으니, 전국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수천억 원대다.

2004년부터 매년 가을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누적 관람객 수는 300만 명, 연간 경제 효과는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가평 인구(2022년 기준 약 6만 명) 규모의 관람객이 페스티벌을 찾는 것이다. 한물간 놀이공원으로 불리던 과천 서울랜드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으로 갈 곳 잃은 페스티벌들이 등지를 틀면서 '페스티벌 성지'로 거듭났다. 네덜란드에서 온 가장 힙한 페스티벌 '2024 Don't Let Daddy Know', 태국에서 건너온 워터 뮤직 페스티벌 'S2O Korea' 등이 이곳에서 열린다. 2018년 영업 이익은 81억 원 적자였지만, 페스티벌 덕에 지난해에는 4억 원 흑자를 기록했고 입장객 수도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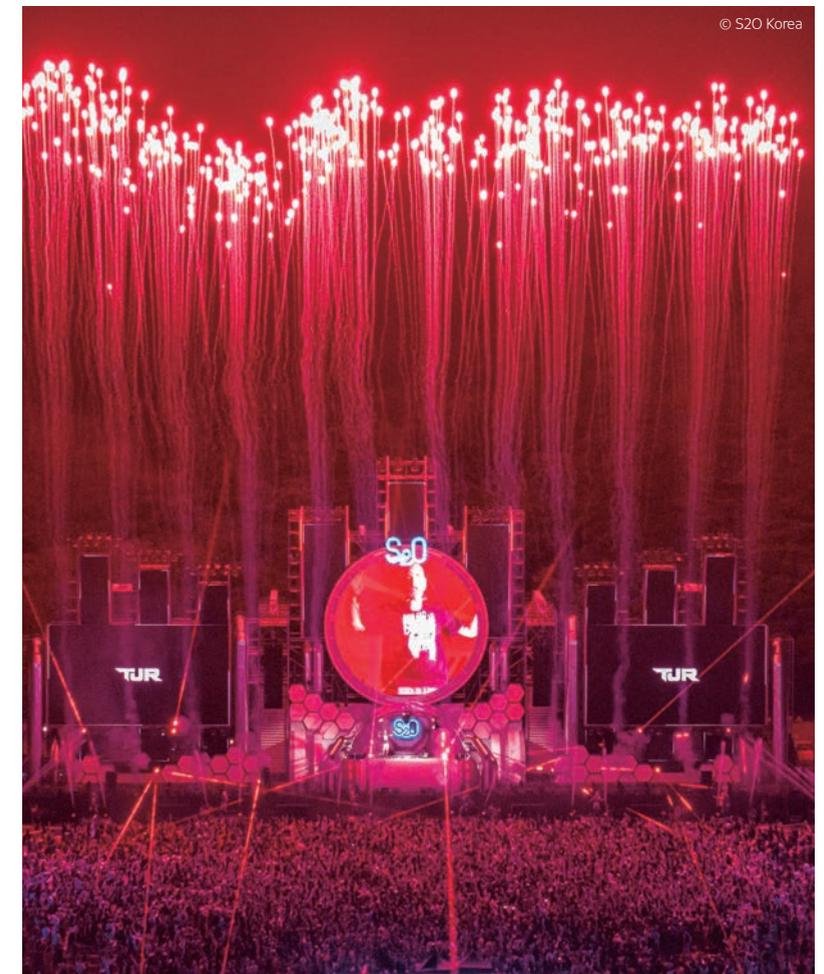
페스티벌 찾는 외국인 관광객

페스티벌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많아졌다.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올여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워터밤 대구,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인기가 높은 뮤직 페스티벌 기간 즈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K팝 아이돌이 출연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개최된 6월 7~9일 부산 숙박을 위한 외국인 검색은 작년 동기간 대비 158% 증가했고, 워터밤 기간 대구 검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 증가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시기 인천 검색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배가 증가했으며, 일본·대만·중국·홍콩·미국 등이 최다 검색 국가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5~16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알리 익스프레스 2024 위버스콘 페스티벌'은 이틀간 2만2,0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그중 51%가 외국인 관객이었다. 세븐틴 등 K팝스타들이 총출동했기 때문이다. 앞서 6월 7~8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올트라 뮤직 페스티벌'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우버 택시를 타고 공연장으로 온 그들은 호텔과 그 주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페스티벌을 즐겼다. 페스티벌 VIP 손님들은 호

텔 내 클럽인 크로마와 연계해 행사를 진행했는데, 전용기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역대 술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페스티벌 관계자는 "VIP 매출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무대 옆 VIP 라운지의 기본 티켓은 200만 원부터, 비싼 술들은 몇천만 원대까지도 판매된다"고 말했다.

오오카 히로토 아고다 북아시아 서플라이 부문 부사장은 "세계적으로 흥미로운 행사와 경험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가 많아지면서 아시아 지역의 문화 행사를 위한 여행이 점점 더 각광받고 있다"며 "K팝은 물론 K푸드, K뷰티 등 한국 관광의 강점이 문화에 기인하는 만큼, K컬처는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 산업의 잠재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건너온 워터 뮤직 페스티벌 'S2O Korea'

SEONGNAM



2024
성남 페스티벌

FESTIVAL

성남 탄천
탄천종합운동장 앞



성남시 주최
성남문화재단 주관
NH농협은행 협찬
(주)성남시지부
031-783-8000 문의
www.snart.or.kr/festival



10.5. SAT
10.13. SUN



미리보기 1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투어트>

미리보기 2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

미리보기 3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미리보기 4

2024 성남의 얼굴: REGATHER

미리보기 5

2024 성남작가조명전 5
<서수영: HERITAGE CODE>

미리보기 6

2024 지역예술가교류전
<춤는 도시, 도시의 리듬>

다시보기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아티스트 토크

연출가 로버트 윌슨

V

I

E

M

P R E
V I E W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튜어트>

거장들이 빚어낸
극한의 아름다움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 Bronwen Sharp

언어보다 더 풍부한 이미지로 무대를 채우는 연출가 로버트 윌슨과 존재감 자체로 관객을 압도하는 배우 이자벨 위페르.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두 사람이 올가을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온다. 2019년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초연작인 <메리 스튜어트 Mary Said What She Said>,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 간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내밀한 독백을 동시대 최고 예술가들의 감각으로 만나는 무대다.

연극사의 살아 있는 전설 로버트 윌슨과 스크린의 여왕 이자벨 위페르의 만남이라니, 듣고서도 귀를 의심할 만큼 신선하고 놀라운 조합이지만 사실 두 사람은 이미 두 차례나 함께 무대 작업을 한 적이 있다. 1993년 로버트 윌슨은 버지니아 울프의 원작을 대릴 핑크니가 각색한 모놀로그 <올란도>의 프랑스어 버전에서 위페르와 함께 경이로운 조합을 보여 준 바 있다. 이후 윌슨의 또 다른 연출작 <콰르텟>에서도 위페르는 섬세하고 세련된 무대 연기를 선보였는데 이는 여러 배우들과 함께 출연한 작품으로, 단 한 명의 배우가 모든 무대를 이끌어 가는 모놀로그와는 결이 다른 공연이었다.

<올란도>에서 영국의 300년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 내는, 그것도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위

치와 시선에서 관통하는 올란도 역을 맡아 완벽한 호흡과 연기를 선보였던 위페르와 윌슨이 30년 만에 다시 모놀로그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메리 스튜어트>는 기획 단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다. 게다가 영국 왕실을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하고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메리 스튜어트의 내밀한 편지를 바탕으로 한 독백이라니. 뜨거운 관심 속에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무대에서 초연된 <메리 스튜어트>는 “실로 완벽한 듀오”라는 극찬을 받으며 유럽의 관객을 사로잡았고, 이제 성남아트센터에서 아시아 초연으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영광과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

영국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끈 엘리자베스 1세

와 종종 함께 언급되곤 하는 메리 스튜어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격정적인 삶을 살다 간 인물이다. 스코틀랜드의 왕조 스튜어트가 유일한 정통 계승자인 메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대관식을 치렀고 프랑스 왕비, 스코틀랜드 여왕,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라는 화려한 왕관을 겹으로 썼지만, 바로 그 고귀한 신분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어릴 적 프랑스 궁정으로 시집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메리는 왕비 즉위 1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죽는 바람에 초고속 과부가 되어 조국 스코틀랜드로 귀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스코틀랜드는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첨예한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중이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메리는 스코틀랜드에 굳게 뿌리내린 프로테스탄트 귀족 및 백성들과 살얼음 같은 공존의 길을 걸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헨리 8세 경과 무색무취한 결혼과 남편의 의문사, 불륜인지 납치인지 애매모호하게 진행된 보스웰 백작과의 재혼, 쌍둥이 유산 등 개인적으로도 매우 혹독하고 불행한 사건들을 겪었다. 결국 보스웰과의 결혼으로 민심도 잃고 여왕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한 메리는 전국에서 일어난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패배했고, 아들 제임스에게 양위한 뒤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 중인 잉글랜드로 몸을 피했다.

엘리자베스 1세에게 메리 스튜어트라는 인물은 참으로 미묘하고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가까운 친척인 데다 신성한 왕실의 핏줄인 메

리를 대놓고 버릴 수는 없지만,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로부터 방치당한 채 18년간 영국 변방의 성들을 떠돌며 삼엄한 감시와 경계 속에 살았고, 결국 가톨릭 교도 역모 가담 혐의로 참수형을 당했다. 처형의 순간에도 그녀는 가톨릭에서 순교자를 상징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고개를 내밀었다고 한다. 누구보다도 고귀했으나 또한 비참했던 여인, 메리 스튜어트의 기구한 삶은 후세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실러의 희곡, 도니제티의 오페라, 슈테판 츠바이크의 전기 소설을 비롯해 영화 <메리, 퀸 오브 스코틀랜드>, 드라마 <레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역사물의 소재가 되어 왔다.

마지막 순간을 앞둔 처절한 독백

이번 작품 <메리 스튜어트>는 죽음을 앞둔 메리 스튜어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바탕으로 한 회상과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올란도> <도리안> 등 여러 작품에서 로버트 윌슨과 호흡을 맞춰 온 극작가 대릴 핑크니는 메리의 일대기나 드라마틱한 사건보다는 그녀의 내면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3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차분하면서도 격정적인 독백을 선보인다.

다가올 처형을 앞둔 고요한 밤, 차가운 달빛 아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메리는 무수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과 운명을 돌이켜 본다. 1부에서는 프랑스에서 보낸 왕비 시절이, 2

부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의 사건들과 감금 생활이, 그리고 3부에서는 그녀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신교의 총돌이 주를 이룬다. 언뜻 들으면 마지막 고해 성사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내면의 대화 같기도 한 독백 속에서 메리는 모욕당한 여왕의 괴로움, 세 남편에 대한 애증, 네 명의 시녀에 대한 그리움, 부당한 선고에 대한 고통 등 다채로운 감정의 스펙트럼을 펼쳐 보이고, 그 사이사이 그녀가 겪었던 짧고 눈부신 행복과 형용할 수 없는 불행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극중 메리도, 작가인 대릴도 그녀가 정말 전남편을 죽였는지, 보스웰과 모략을 꾸렸는지,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역모에 직접 참여했는지와 같은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역지로 그녀의 삶을 미화하지도 않는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진실 여부가 아니라 삶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메리의 태도이다. “나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형벌을 받았어”라는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 메리는 그 모든 비극과 고통의 궤적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 간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운명이었음을 당당하게 인정한다. 비록 그 선택이 그녀를 항상 궁지로 몰아넣고 비극적으로 끝났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선택과 열정에 충실했으며 마지막까





MARY SAID WHAT SHE SAID.

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장르이기에, 이미 두 번이나 위페르와 모놀로그를 작업한 로버트 윌슨이 얼마나 그녀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는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을 듯하다.

사실 위페르에 대한 설명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싶다. 프랑스 영화의 아이콘이자 베니스와 칸 영화제를 각기 두 번씩이나 석권한 위대한 배우, 데뷔 이후 1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 연극에 출연하면서 한계가 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펼쳐 보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혹적인 아름다움과 분위기로 관객을 사로잡는 배우. 그녀의 눈부신 업적과 대표작을 일일이 나열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명성과 경력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녀의 작품을 딱 한 편만 집중해서 본다면 이 배우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지적인 해석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무대에서도 위페르는 시종일관 당당하고 처연한 자태와 표정으로 객석을 사로잡는다. 그림처럼 깨끗한 자세와 춤을 추듯 우아한 몸놀림, 기도하듯 노래하듯 읊조리는 목소리와 걱정 속

지 여왕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

존재만으로 압도적인 배우

이렇듯 복잡하고 섬세한 메리의 내면을 연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어떤 상대역도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독백으로 90분의 공연을, 나아가 메리 스투어트의 한 많은 인생을 통째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웬만한 배우들에게는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메리 역을 맡은 배우가 이자벨 위페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게 된다. 그 이름과 존재만으로 이미 관객을 압도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배우, 바로 그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실 모놀로그는 그 자체로 배우에 대한 절대적

에 떨구는 눈물 한 방울까지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구석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유럽 영화의 주인공으로, 또 최근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페르소나로 널리 알려진 배우지만, 환한 조명 아래 섬세한 숨소리와 호흡을 고르는 순간의 정적마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녀의 무대 연기는 스크린과는 전혀 다른 질감으로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살아 있는 전설, 로버트 윌슨

메리 스투어트의 삶, 대릴 핑크니의 대본, 이자벨 위페르라는 배우, 이렇듯 훌륭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로버트 윌슨이라는 위대한 연출가를 빼고는 이 작품을 이야기할 수 없다. 현대 공연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자 이미지극의 대가로 손꼽히는 윌슨은 빛과 움직임, 텍스트와 음악 등 다양한 요소들을 비범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엮어 내어 매혹적인 미장센을 만들어 내는 연출가다. 무대 위에 그가 구현해 내는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 한번 보면 잊히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아름다움과 강렬한 감정을 선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무대 미학의 한 장르로 굳혔다. 특히 조명과 색감이 만들어 내는 선명한 시각적 효과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윌슨은 예전부터 “나의 무대에서 빛은 하나의 배우로 기능한다”고 말할 만큼 빛과 조명에 예민한 연출가인데, 이번 무대에서도 아무런 세트나 소품이라고 없는 텅 빈 무대를 오로지 빛과 조명으로 가득 채우면서 메리가 놓인 상황과 복합적인 감정의 결을 시각적

으로 구현해 낼 예정이다. 또, 수많은 오페라 작업을 통해 음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해석을 보여 준 바 있는 윌슨은 이번 작품에서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와 함께 강렬하고 고풍스러운 음악적 풍경을 선보인다. 서사적인 사건 대신 독백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인 만큼, 음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도적으로 드라마를 이끌어 가며 메리의 감정을 무대 위에 수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터다.

로버트 윌슨은 2000년 <바다의 여인>으로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뒤 <크라프의 마지막 테이프> <마크로폴로스의 비밀> <셰익스피어 소네트> <해변의 아인슈타인> 등의 작품으로 꾸준히 한국 관객들과 만나 왔다. 작품마다 모두 분위기와 색깔, 결이 다르기에 그의 공연이 어떻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아니, 애초부터 윌슨의 작품 세계를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신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했던 말을 윌슨의 작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용하고 싶다.

“시란 설명하면 진부해지고 말아.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뿐이지.”

그의 무대를, 그가 만들어 내는 극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가을 직접 그 강렬한 이미지를 경험해 보는 것뿐이라고.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투어트>

일시 | 11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2일(토) 오후 3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031-783-8000



© Caroline de Bon



© Felix Broede / DG

PREVIEW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

괴르네와 피레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나그네길

글 황진규 음악 칼럼니스트

WINTERREISE.

↑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가 10월 26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 홀을 찾아온다. 가을의 끝자락, 두 대가가 들려주는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슈베르트의 마지막 불꽃, <겨울 나그네>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가곡의 왕'으로 불렸던 이 작곡가의 작품 가운데서도 최상급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이른바 작곡가의 '3대 연가곡'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작품은 1827

년에 작곡되었는데, 이보다 4년 전에 나온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에 비해 훨씬 어둡고 처

절한 비극을 그려 내고 있다. 당시 슈베르트는 병마에 심각하게 시달렸고,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겨울 나그네>나 현악 5중주 같은 위대한 걸작이 나온 것은 이 시기였으니, 참으로 알맞은 일이다.

이 연가곡은 모두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와 마찬가지로 독일 시인인 빌헬름 뮐러의 시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시는 대체로 소박하며 심오함과 거리가 멀지만 슈베르트는 유독 그의 시를 좋아했다. '정처 없는 떠돌이'라는 이미지가 작곡가의 내면과 공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30대 초반에 요절했다는 사실도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뮐러는 1827년 9월에 서른세 살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인은 의외로 심장마비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해는 베토벤이 (봄에) 사망한 해이기도 하다. 당시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관을 운구하는 데 참여했다고 전한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 <겨울 나그네>를 작곡했고, 이듬해인 1828년에 세상을 떠났다.

슈베르트가 사적인 모임에서 이 곡을 들려주었을 때 친구들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이처럼 어두운 곡은 슈베르트 본인에게도 그리 좋지 않으니라는 판단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슈베르트는 씩씩히 웃으면서 "이 곡은 이전에 쓴 어떤 작품보다도 나를 감동시킨다네"라고 말했다.

이 연가곡은 첫 곡 '밤 인사'부터 마지막 곡 '거리의 악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스물네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슈베르트는 각 곡을 시집에 실린 순서와 달리 자신이 생각한 순서에 따라 재배열했다. 각 곡은 서로 이어져 느슨한 줄거리를 이루지만 이 줄거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의 심리 추이에 따른 것이다. 슈베르트가 삶의 마지막에 느낀 사랑과 고독을 깊은 사색으로 표현한 <겨울 나그네>는 작곡가가 마지막으로 피워 올린 불꽃이라 부르기엔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겨울을 앞두고 두 거장이 들려줄

<겨울 나그네>

마티아스 괴르네는 독일 바이마르 출신 성악가로, 음역은 남성 성악의 중저음에 해당하는 바리톤이다. 그는 풍부한 성량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 뛰어난 리듬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독일 가곡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평이 나 있다. 특히 슈베르트의 가곡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지니고 있다.

괴르네는 바이마르 시립 오페라의 소년 합창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나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같은 위대한 성악가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1989년 로베르트 슈만 콩쿠르 2위, 1990년 후고 볼프 콩쿠르 우승 등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건강 때문에 급히 공연을 취소한 피셔디스카우를 대신해 말러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를 부른 것은 그에게 큰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1994년 런던 위그모어 홀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하이페리온 레이블에서 슈베르트 가곡 전집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던 피아니스트 그레이엄 존슨에게 발탁되어 시리즈 가운데 제27집 '슈베르트와 슐레겔 형제'를 녹음함으로써 독일 가곡계의 섯별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같은 시리즈의 제30집 <겨울 나그네> 음반은 그가 섯별을 넘어 새로운 대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음반은 1997년 타임지의 '올해의 베스트 음반'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성악계에서 중견을 넘어 어느덧 원로를 내다보는 지점까지 왔지만, 2021년에는 피아니

스트 조성진과 함께 바그너와 피츠너, 슈트라우스의 가곡을 담은 음반을 발매하는 등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겨울 나그네>는 괴르네가 지금까지 음반만 세 번 발매했을 정도로 그의 레퍼토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며, 무대에서 이 곡을 노래한 것은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괴르네는 이미 2016년에 내한하여 마르쿠스 힌터호이저의 반주로 <겨울 나그네>를 노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피아노 반주를 맡은 인물이 다름 아닌 마리아 조앙 피레스라는 사실이다.

두 거장이 빛어낼 마법 같은 순간

마리아 조앙 피레스가 포르투갈이 낳은 피아니스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세 살 때 연주를 시작해 일곱 살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정도로 신동이었다. 독일에서 정통 피아니스트로 이름난 빌헬름 켐프를 사사했고, 1970년 브뤼셀에서 열린 베토벤 탄생 200주년 기념 콩쿠르에서 우승함으로써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후 그녀는 1980년대에 손목 부상으로 활동을 쉬거나 2006년에 심장 수술을 받는 등 잠시 공백기를 가진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활동을 이어 왔으며, 여든이 넘는 지금(올해 7월 23일에 80세 생일을 맞았다)도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동안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여겨졌으나 이후 바흐, 쇼팽, 슈

베르트, 슈만, 드뷔시 등에서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며 기존의 인식을 떨쳐 버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작품에서 빛을 발했던 맑고 단아하며 섬세한 해석 자체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22년 11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독주회는 피레스의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당시 그녀는 드뷔시에서 마법에 가까운 매혹적인 연주를, 슈베르트에서는 차분하고도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대가의 원숙함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주었다.

마티아스 괴르네와 마리아 조앙 피레스, 이 두 대가를 같은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며, 특히 피레스의 나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함께하는 공연은 앞으로 없으리라 예상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두 사람이 각자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음악성이 한데 만나 어떤 마법을 일으킬 것인지, 생각만 해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겨울을 앞두고 괴르네와 피레스가 들려줄 <겨울 나그네> 공연이 올겨울을 행복하게 날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

일시 | 10월 26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P R E
V I E W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의 소설, 21세기 판소리로 재탄생하다

글 허서현 월간 <객석> 기자

판소리의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된다.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창극을 개발하거나, 편곡을 거쳐 서양 악기와 접목하기도 한다. 관객에게 판소리를 소개할 수 있는 방식들이 다채로워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수와 소리꾼 그리고 추임새를 넣는 관객으로 구성된 전통 판소리의 형태가 유지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이자람의 <노인과 바다>는 판소리의 원형을 오늘날의 관객이 쉽게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공연이다.

브레히트의 서사극을 원작으로 <억척가> <사천가>를, 남미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이방인의 노래>를 만들어 온 그가 2019년에 선보인 최근작이 <노인과 바다>다. 창작자 본인이 밝힌 대로, 앞선 작품들이 '판소리의 변형을 시작하는 일'에 가까웠다면 <노인과 바다>는 '판소리를 만드는 일'에 가까운 작업이다. 이에 맞춰 극적인 볼거리는 제거하고, 오롯이 한 명의 소리꾼이 명창이 되어 무대를 가득 채운다. 판소리 고유의 멋이 세련된 소리꾼에 의해 전달된다.

2019년 두산아트센터에서 초연된 이자람의 <노인과 바다>는 이후 30회가 넘게 재연되며 관객의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대문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원작으로 이자람이 작, 작창을 담당했다. 여러 작품으로 호흡을 맞춘 박지혜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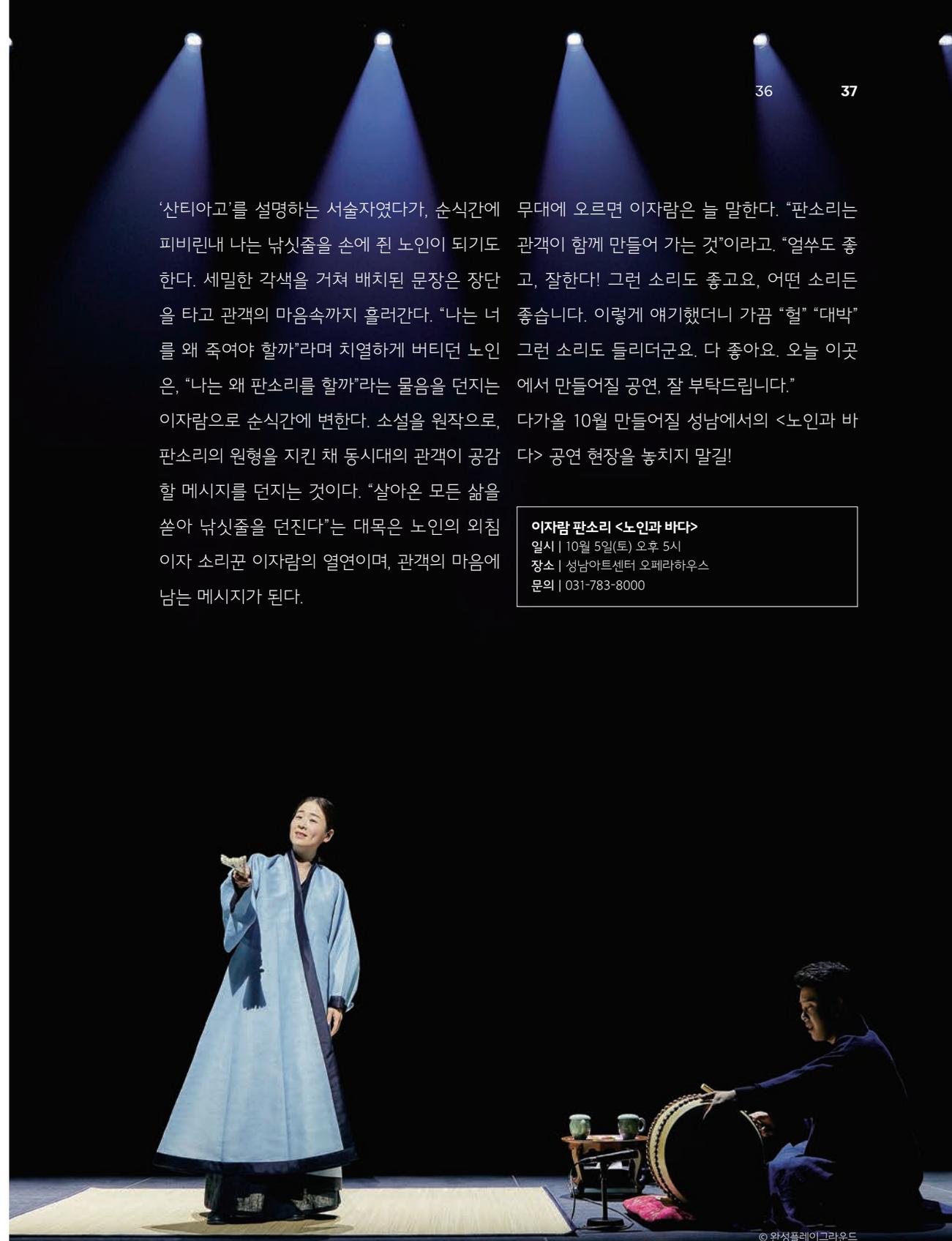
출로, 연신동이 시노그래퍼로 참여했으며 이 작품의 전담 고수 같은 이준형이 무대에 함께 오른다. 공연은 소설의 줄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다로 나간 노인 '산티아고'는 긴 씨름 끝에 청새치를 잡지만 상어에게 모두 뺏기고 허탈하게 돌아온다. 그러나 무대 위의 이자람은 이 이야기의 안과 밖을 숨씨 좋게 오가며 오늘날의 관객에게로 끌어온다. "회에는 역시 와사비에 간장인데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나"라며 능청스러운 농담을 던지는 판소리라면, 전통 공연을 처음 보는 관객이라도 금세 흥이 오르게 마련이다. 반짝이는 바다 위의 물결, 잔뜩 지쳐 흔들거리는 배에서 든 낚잠, 낚시를 하는 긴박한 순간이 입에 착 붙는 우리말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된 것도 이 공연의 재미다.

이자람은 저 먼 나라 쿠바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산티아고'를 설명하는 서술자였다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낚시줄을 손에 쥔 노인이 되기도 한다. 세밀한 각색을 거쳐 배치된 문장은 장단을 타고 관객의 마음속까지 흘러간다. "나는 너를 왜 죽여야 할까"라며 치열하게 버티던 노인 이자람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소설을 원작으로, 판소리의 원형을 지킨 채 동시대의 관객이 공감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살아온 모든 삶을 쏟아 낚시줄을 던진다"는 대목은 노인의 외침이자 소리꾼 이자람의 열연이며, 관객의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된다.

무대에 오르면 이자람은 늘 말한다. "판소리는 관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얼썬도 좋고, 잘한다! 그런 소리도 좋고요, 어떤 소리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끔 "헐" "대박" 그런 소리도 들리더군요. 다 좋아요. 오늘 이곳에서 만들어질 공연, 잘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10월 만들어질 성남에서의 <노인과 바다> 공연 현장을 놓치지 말길!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031-783-8000



P R E
V I E W

2024 성남의 얼굴: REGATHER

흩어진 조각들이 완성한 '성남의 얼굴'

글 백혜원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2024 성남의 얼굴: REGATHER

일시 | 9월 6일(금)~10월 13일(일)까지
10월 5일(토)~12월 5일(목)까지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성남아트센터 야외공간
문의 | 031-783-8142~9

2024 성남의 얼굴전
리게더
: 한데 모이다

2024 성남의 얼굴전
REGATHER

신한철 양태근 유재홍 윤덕수 이윤복 이후창 조성목
2024. 9. 6. FRI — 10. 13. SUN

REGATHER
2024.09.06.
-10.13.

<성남의 얼굴>은 2006년부터 지역의 다각적인 모습을 전시 형태로 소개하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와 발굴을 통해 시민과 관객들에게 그 가치를 꾸준히 알려 온 성남큐브미술관의 대표 주제 기획전이다. 올해 15회를 맞이한 <2024 성남의 얼굴>전은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조각'이라는 장르에 집중하여, 창작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작가 15명(실내 전시 7명, 야외 전시 8명)을 조망한다. 9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실내 조각전은 신한철·양태근·유재홍·윤덕수·이윤복·이후창·조성목 작가, 10월 5일 성남페스티벌 개막과 동시에 선보이는 야외 조각전에서는 김우진·류종윤·박태동·이경태·이성욱·정드리·조용익·최혜광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류종윤, Love Whale, 170x230x270cm,
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 코팅





<성남의 얼굴> 실내 전시 전경

전시명 <REGATHER^{레게더}>는 '다시 한데 모아 다'의 뜻을 가진다. 이는 물리적으로 흩어진 것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작품과 공간 그리고 작가와 관람객이 하나로 엮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작가 개개인이 생각하는 기억과 사람 간의 관계, 혹은 감정이 전시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작업물로 나타나며, 작가들 간 서로 다르지만 미묘하게 교차하는 부분들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게 된다. 서로 다른 체험적 인식과 경험들은 각각의 조각으로 흩어졌다 다시 모여 하나의 또 다른 작품을 완성한다.

<REGATHER>전은 성남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혹은 성남과 연이 있는 조각가들의 작

품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고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성남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도시이다. 각기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성취를 이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듯,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 역시 독창적인 시각과 감각으로 주제를 탐구하며 스테인리스, 나무, 유리 등 재료가 가진 고유의 물성을 살려 저마다의 개성을 나타내 왔다. 각각의 조각 작품이 가진 고유의 조형적 특징과 물질적 속성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미감을 빚어내며 확장된 미적 경험을 관람객에게 선사한다.

야외 조각전 참여 작가인 김우진 작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들을 화려한 색감과 견고한 스테

인리스 소재로 표현해 친근감을 형성한다. 동물의 외형적 묘사보다는 감정적 재현에 초점을 맞춰, 어린 시절의 열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관람객들의 동심을 일깨운다. 류종윤 작가는 삶에서 느끼는 감정을 하나의 밀집된 형상으로 표현해 내는데, 작품 'Love Whale'에서 보여지는 하트와 두 고래는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우리의 어린 시절처럼, 서로에게 선물과도 같은 인간관계 속 소통과 사랑을 보여 준다. 이외에도 박태동, 이경태, 이성욱, 정드리, 조용익, 최혜광 작가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창작 작업을 이어가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성남의 얼굴> 전시가 각 조각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자

리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성남큐브미술관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전시를 매개로 작가와 시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성남의 다채로운 얼굴을 만나며, 지역이 가진 문화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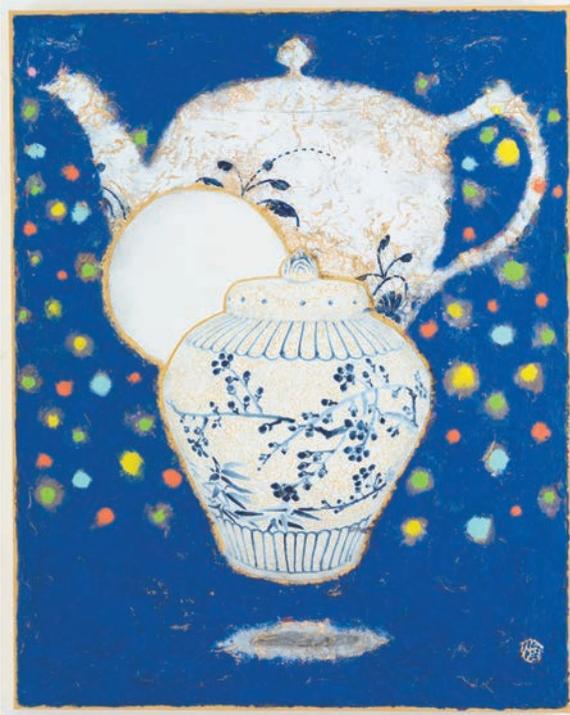
김우진, LION, 스테인리스에 우레탄 도장, 290X125X260cm, 2021

PRE
VIEW

2024 성남작가조명전 5 <서수영: HERITAGE CODE>

전통의 유산에
오늘의 미감을 담다

글 박은경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보물의 정원 202406> 2024, 수제 장치에 혼합 재료, 91x72

성남큐브미술관은 올해 성남 작가조명전의 마지막 전시로 서수영 작가의 <HERITAGE CODE>를 선보인다. 서수영 작가는 동시대에도 통용되는 ‘한국미의 근원’을 찾기 위해, 미술사적 가치가 인정된 국보급 문화재 작품을 작업 주제로 오마주(hommage)하며 한국미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작업으로 주목받는 중견 한국화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작 30여 점 그리고 성남 작가조명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신작 6점을 최초로 선보인다.

한국화가로서 일관된 화업을 쌓아 온 서수영 작가는 지난 30년간 한국 전통 회화의 견고한 방법론을 토대로 화폭 위에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작가는 최근 한국미의 정수를 고고한 백색 미감 속 문인 정신이 깃든 조선 시대 ‘순백자’와 ‘산

수화’에서 찾았고 이를 동시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서수영 작가의 작업은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미술 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가 주장한 민예(民藝) 이론, 즉 한국미의 특징은 ‘무

기교의 기교’와 ‘소박함·고졸함·질박함’이라고 정의한 미학적 해석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서수영 작가는 한국 미술사 속 회화의 시작이자 최초의 채색화라고 평가받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부터 고려 불화와 조선 왕실 궁중 회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미술사를 직조하는 다양한 작품 속에서 찾아낸 ‘격조 높은 화려함’에 주목했다. 작가는 직접 제작한 한지 부조 위에 전통 문인화의 수묵 기법을 바탕으로, 고려 불화에서 정점을 찍은 세밀한 금채(金彩), 조선 왕실 궁중 회화에 주로 사용된 석채(石彩) 등 다양한 전통 미술 재료와 방법론을 사용해 한국미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증명하고 있다.

서수영 작가의 작업은 주제적인 측면 외에 양식적 측면에서도 한국미를 구성하는 각각의 전통 요소와 물성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지(紙), 필(筆), 묵(墨)으로 상징되는 전통 문인화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하면서, 석채를 활용해 전통 오방색을 현대적인 미감으로 채색하여 생동감을 더했으며, 백자 표면의 빙렬(氷裂, 유약을 바른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간 상태)과 백자를 품고 있는 산수화의 묘사는 화려한 금채로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작가가 추구하는 한국적 미감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재료 한지는 조선 백자의 부드러운 곡선미와 풍만한 부피감을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지녀 작품의 바탕이 되었다. 한국미를 섬세하게 구현하기 위해 서양 회화의 캔버스가 아닌 전통 한지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작가가 추구하는 한국미와 전통 유산은 단지 과거의



↑ <보물의 정원 202418> 수제 장치 위에 금박24k, 합금박, 석채, 먹, 163x132cm, 2024



↑ <보물의 정원 202420> 수제 장치 위에 금박24k, 합금박, 석채, 먹, 91x72cm, 2024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 삶에서 기운생동(氣韻生動)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포한다.

서수영 작가의 작업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잇는 과정을 넘어, 동시대 문화적 감성을 관통하는 코드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가 전하는 한국미의 근원을 함께 찾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4 성남작가조명전 5 <서수영: HERITAGE CODE>

일시 | 11월 1일(금)~12월 22일(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142-9

PRE
VIEW

2024 지역예술가교류전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

경계를 넘어선 영감의 확장

글 이수정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 강 건, 울음소리 I,
60.0×85.0×38.0cm, 깃털, 양모, 합성 레진, 2023
⇨ 강 건, 울음소리 II,
86.0×103.0×52.0cm, 깃털, 양모, 합성 레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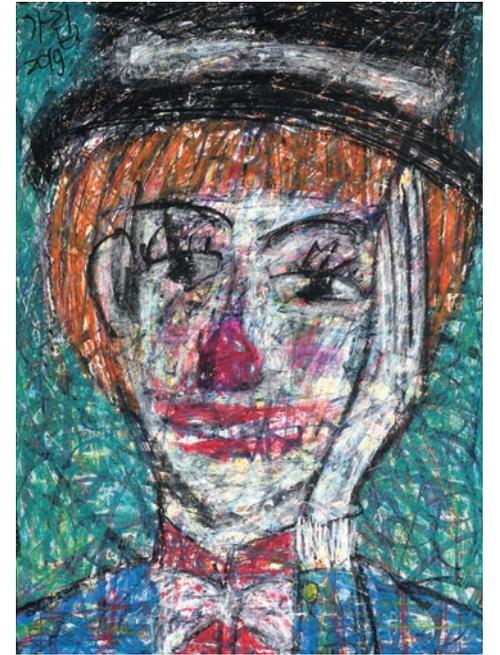
DANCING CITY,
RHYTHM OF THE CITY.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오는 11월 1일(금)~12월 1일(일), 2024년 지역예술가 교류전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을 개최한다. 지역적 거리와 경계를 넘어 동시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장뵡을 통해 창작 영역을 확장하고, 다채로운 영감을 얻는 유의미한 시간을 기대한다.

성남큐브미술관은 타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성남 지역의 문화와 예술가를 국내 예술계에 알리고, 지역적 경계를 넘어 동시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장뵡을 통해 유의미한 시간을 갖고자 '지역예술가교류전'을 기획해 오고 있다. 올해는 부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과 공동 기획으로 선보이는 전시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이 11월 1일(금)~12월 1일(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성남 지역의 강건·이정희·김래현 작가, 부산의 김미래·이영아·정찬일 작가, 전주의 김성수·이가립·조민지 작가까지, 회화·조각·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주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9명의 청년 작가를 소개한다.

전시의 주제는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이다. 우리의 도시는 건축물의 나열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시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담겨 있는 공간의 체계이며, 예술적 상상력 또한 도시와 다채로운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다. 도시 안의 거리와 건물들, 다양한 삶의 장면들, 때로는 소음과 정적까지 도시만의 고유한 리듬을 형성한다. 그 안에서 창작자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안무를 찾기 위한 조형적 탐구를 지속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와 상황을 조우하는 창작자들은 각 도시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조형적 움직임을 빚어내고, 이를 작품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표현하며 때로는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도시'라는 각자의 고유한 리듬에 근거한 창작



이가립, Smile, 109x79cm, Oil pastel on paper, 2019

행위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하나의 장소에서 의미 있게 결합하여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또 하나의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 삶과 예술의 영원한 영감의 원천인 도시.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 전시를 통해 우리가 살아온 도시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도시의 일상 속에서 각자의 기억에 남을 예술적 장면을 마주하길 바란다.

2024 지역예술가교류전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

일시 | 11월 1일(금)~12월 1일(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 031-783-8142-9

R E
VIEW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이렇게 스릴 넘치는 <백조의 호수>라니...

글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최재우

SWAN LAKE.

<백조의 호수>는 발레의 대명사다. 순백의 튜 튜를 입고 머리에 깃털 장식을 붙인 발레리나들의 모습이 발레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가 됐다가 밤에는 다시 인간이 되는 오데트 공주와 그녀에게 매혹된 지그프리트 왕자의 사랑을 그렸다.





1877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된 발레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다. 이후 189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클래식 발레의 아버지' 마리우스 프티파와 그의 조수인 레프 이바노프가 다시 안무하면서 불멸의 레퍼토리가 됐다.

프티파-이바노프 이후 수많은 안무가가 <백조의 호수> 재안무에 나섰다. 그 인기만큼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백조의 호수>가 나온다고 해도 더 이상 놀랍거나 흥미롭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 8월 23~25일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오른 중국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백조의 호수>

일시 | 8월 23일(금)~25일(일)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XI'AN ACROBATIC TROUPE.

이보다 강렬할 수 없다,

서커스 발레로 만난 <백조의 호수>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이 선보인 <백조의 호수>는 '백조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공주와 왕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원작 발레의 큰 뼈대를 유지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줄거리는 동양의 공주가 나쁜 마법사의 저주에 걸리는 것을 꿈에서 본 서양의 왕자가 이집트,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 장안까지 공주를 찾아오는 여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원작 발레에선 백조 오델과 흑조 오데트를 한 명이 연기하지만, 이 작품에선 다른 무용수가 각각 연기한다. 그리고 원작의 비극적인 결말도 해피 엔딩으로 바뀌었다.

'아크로바틱 발레' '서커스 발레'라는 수식어에



서 일부 관객은 발레에 포커스를 두고 이번 공연을 보러 왔다가 당황하기도 한다. 저글링, 줄타기, 후프 돌리기, 장대 묘기, 아크로바틱 퍼포먼스 등 서커스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저글링 등에서 자잘한 실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고난도 퍼포먼스로 관객을 몰입시키며 이야기의 빈틈을 메운다. 서커스가 중심이지만 발레를 모티프로 한 만큼 정통 발레 동작과 안무가 적지 않게 포함됐다. 토슈즈를 신은 여성 무용수들의 군무나 남녀 파드

배운 덕분이다. 이와 함께 <백조의 호수> 중 유명한 4마리 백조의 춤을 패러디한 것도 흥미롭다. 4명의 남성 무용수가 백조 의상을 입고 코믹하게 춤을 추는가 하면 4마리 개구리가 등장해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왕자와 공주의 파드되다. 1막 후반부의 왕자가 공주를 처음 만나는 장면, 2막 후반부에서 왕자가 마법사와 싸워 공주의 저주를 푸는 장면이 각각 나온다. 특히 공주가 왕자의 어깨나 머리 위에서 피루에트나 아라베스크를 하는 등 각종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스릴 때문에 객

석 곳곳에서 감탄이 튀어나온다. 남녀 주인공을 맡은 저우지예와 쑤위나는 아크로바틱 기량은 물론 표현력도 발군이었다.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가 바로 이 파드되에서 시작된 데서 알 수 있듯 압도적인 강렬함을 자랑한다.

이 파드되는 원래 중국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단원이었던 웨이바오화-우젠단 부부가 1998년 '동양의 백조-머리 위에서 춤추는 발레'란 제목으로 처음 선보였다. 그러다가 이 파드되를 본 중국 안무가 자오밍의 아이디어로부터 2004년 <백조의 호수> 모티프의 전막 서커스 발레가 만들어졌다.

극한의 테크닉에 발레의 예술성을 더하다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 서커스단들은 다양한 아크로바틱 퍼포먼스를 나열식으로 보여 주는 데 그쳤다. 과거에 한국에 왔던 중국 서커스단들이나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서커스 공연장에서 볼 수 있던 공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구에서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등

장한 '컨템퍼러리 서커스(또는 뉴 서커스)'가 아크로바틱한 테크닉을 활용해 스토리와 테마를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전통적인 형식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커스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최신 서커스 트렌드와 거리가 있던 중국에서 놀라운 테크닉을 한층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다. 당시 중국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 "서커스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서커스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찬사가 나왔을 정도다.

서양 발레의 낭만과 동양 서커스의 스타일이 결합된 서커스 발레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예술 형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덕분에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2004년 중국 초연 이후 해외에서도 많은 초청을 받았다.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공개돼 있는데, 왕자와 공주의 파드되는 3,000만 뷰가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주역을 맡았던 두 단원의 노화와 함께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조직 정비로 공연이 중단돼 아쉬움을 자아냈었다. 다행히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과 청두 깃발 아크로바틱 예술단 출신 단원들을 중심으로 2019년 새롭게 설립된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이 이 작품을 리바이벌한 뒤 해외 투어 공연에 나선 덕분에 이번에 한국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스타일 넘치는 아크로바틱과 우아한 발레 무브먼트로 <백조의 호수> 상연사에 새롭게 이름을 각인했다.





연출가 로버트 윌슨

빛으로 그린 세계

ROBERT WILSON.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월간 <객석> 기자로 출발해 공연과 문화에 관련된 글쓰기와 강의, 드라마터그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저서로 『페테르부르크 막이 오른다』와 『슬라브 막이 오른다』가 있다.

‘이미지 연극 the Theater of Images’이란 용어는 연극 이론가 보니 마란카가 처음 명명했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로버트 윌슨 Robert Wilson, 1941-부터 떠올린다. 빛, 소리, 움직임 등 선명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이용해 한 편의 시처럼 은유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는 그의 작품들은 서사를 중시하는 기존의 무대들에 도전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왔고, 그의 이름은 그 자체로 이미지 연극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같이 오랜 잔상을 남기는 연출가 윌슨의 또 하나의 작품이 11월 1일과 2일,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연극 <메리 스투어트>의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작품에 대한 그의 생각을 서면으로 미리 만나 보았다.

이번 공연 <메리 스투어트 Mary Said What She Said>는 무엇보다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와의 두 번째 모노드라마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두 사람은 이미 30년 전 또 다른 1인극인 <울란도>의 프랑스어 버전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으며, 이후 하이너 뮐러의 <콰르텟>에서도 함께 작업했다. 모든 작품에서 연출과 배우의 합은 공연의 완성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지만, 특히 오롯이 배우 혼자서 공연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모노드라마에서 배우에 대한 연출의 믿음과 기대는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로서 이자벨 위페르의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윌슨은 짧지만 확실한 생각을 보내 왔다.

“제가 이자벨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점은 그녀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녀에게 형식적인 디렉션 몇 가지를 요구할 뿐입니다. 더 느리게, 더 빠르게, 더 거칠게, 더 내면적으로, 더 드러내서! 하고 말이죠. 지난

59년간 극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배우에게 작품에 대해,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의 형식적인 디렉션을 그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채워 가며 인물을 구현해 냅니다. 배우들은 인물을 만들 때 엄격한 틀을 구축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유를 함께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기계적인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할수록 그들은 더 자유로워지더군요.”

30년을 돌아온, 두 거장의 재회

윌슨이 이자벨 위페르와 모놀로그 <올란도>의 프랑스어 버전을 초연한 것은 1993년이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기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을 변했을 긴 시간 뒤에 다시 만나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지점이나 변화를 발견하게 되기 마련이다. 윌슨은 이자벨이 지닌 비밀스런 미스터리가 바로 그녀의 알 수 없는 매력이라고 설명한다.

“1970년대 초에 이자벨을 알게 된 이래로 그녀는 음역대와 감정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비밀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녀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지점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 이번 작품의 대본을 쓴 대릴 핑크니 또한 로버트 윌슨의 오랜 동지이자 작업자이다. 그동안 윌슨은 핑크니와 함께 <올란도> <도리안> <페소아-내가 된 이후> 등 많은 작품을 함께해 왔다. 그중에는 <올란도>처럼 원작자(버지니아 울프)의 대본을 핑크니가 공연에 맞게 각색한 것도 있고, 이번 작품처럼 아예 그가 직접 텍스트를 쓴 작품도 있다. 공연의 서사나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시청각적 요소를 더 중시하는 연출가로서 핑크니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 특히 매력을 느끼는지 물어보았다.

“대릴 핑크니는 자신만의 개인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는 작가이며 매우 박식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대릴의 글쓰기는 그 시대에 대해, 그 인물에 대해 자유롭게 연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의 글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의 작품에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입니다. 대릴이 메리 스투어트에 대해 쓴 이번 텍스트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점은 그가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떤 대답도 주지 않으면서 반대로 그녀의 삶에

로버트 윌슨의 연출작
<페소아 Pessoa Since
I've been me>



대해 질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릴 핑크니는 죽음을 앞둔 메리 스투어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회상과 독백을 풀어놓지만, 그녀의 삶과 관련된 주요 미스터리(메리 스투어트가 정말 남편을 죽였는지,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모반에 직접 연루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메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다층적인 시각으로 그녀의 삶을 바라보게 만든다. 한편, 이 작품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극중 메리 스투어트가 자신을 따르던 4명의 시녀를 끊임없이 기억으로 호명한다는 점이다. 이들 4명의 시녀는 신기하게도 모두 메리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메리가 기억하는 메리, 메리가 그리워하는 메리, 메리가 원망하는 메리 등 반복해서 불리고 섞이고 겹치는 ‘메리들’의 이름은 그 자체로 작품 안에서 또 다른 층위의 의미망을 만들어 낸다. 인터뷰에서 윌슨은 이러한 ‘메리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이어 갔다.

“사람들이 극중 ‘메리들’의 의미를 종종 묻곤 하지만,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번 저는 그녀들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연극은 ‘해석’을 위한 연극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닌, 감각으로 만나는 무대

분명 윌슨의 연극은 해석보다는 감각으로 이해해야 하는 연극이다. 다른 연극 작품

처럼 서사를 분석하고 대사 하나하나를 되새기기보다는 눈과 귀를 활짝 열고서 무대 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것은 역시 강렬한 조명과 그림자가 만들어 내는 빛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도 아무런 세트도, 소품도 없는 텅 빈 무대를 창백한 빛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월슨은 무대 위의 빛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확실한 의견을 보내 왔다.

“조명에 대해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듯이 ‘빛은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빛이 없다면 공간도 없죠. 빛은 무대 위에 첫 시작점인 공간을 창조해 내고 프로덕션 전체에 걸쳐 발전시켜 갑니다. 제 연극에서는 빛, 소품, 움직임, 텍스트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모두 공연이라는 하나의 구조물의 일부뿐이니까요. 여기에 음악까지 포함해 모든 요소들이 마치 태피스트리처럼 함께 엮여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로버트 월슨의 이름은 그 자체로 공연계에서 하나의 장르, 혹은 전설이 되어 왔지만, 그는 여전히 전설이다. 이미 80세를 넘긴 나이임에도 지금까지 활발하게 다양한 예술가들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로버트 월슨은 리투아니아의 작곡가 지부오클레 마르티나이티테와 함께 빌뉴스 오페라 하우스가 제작하는 새로운 오페라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끝없는 도전과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지 원동력이 궁금했다. 또한 비디오와 증강 현실,



로버트 월슨 연출
<서푼짜리 오페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와 장비가 널린 이 시대에 극장이라는 공간과 공연이라는 장르가 우리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아 있는 전설’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인생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매 순간 결코 같지 않으니까요. 제게 끊임없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극장은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고대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일정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함께 나누었던 오래된 형태입니다. 함께 존재하면서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자신과 완전히 다른 정치적·사회적·경제적·종교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한 공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라는 공간은 사회에서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변화를 느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삶이자 예술이라고 생각했기에, 월슨은 무대 작업에 있어서도 언제나 변화에 열린 자세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고 그 덕분에 공연예술의 장르와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을 받았다. 59년의 세월을 무대 위에서, 또 무대 뒤에서 살아오면서 로버트 월슨은 연극과 오페라, 음악극과 실험극 등 수많은 공연을 제작했으며 그 속에서 여러 배우, 음악가, 작가들과 협업을 이어 왔다. 새로운 예술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객과의 만남 역시 언제나 설레고 그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실제로 미국,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각지의 극장에 초청받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바 있다. 한국에도 이미 <바다의 여인> <크라프트의 마지막 테이프> <마크로폴로스의 비밀> <셰익스피어 소네트> <해변의 아인슈타인> 등 여러 작품이 소개된 바 있는데, 그는 이번 공연 이후에도 또 다른 자신의 작품을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가 다음번에 우리에게 선보일 작품은 무엇이 될지, 여전히 원기왕성한 그가 앞으로는 어떤 작품들에 새롭게 도전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하지만 일단은 올가을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오는 <메리 스투어트>의 무대부터 만날 차례다. 그의 조언에 따라 머릿속으로 해석하기를 멈추고, 온 감각을 열어젖힌 채 월슨과 위페르가 그려 내는 메리 스투어트의 슬픔과 회한, 고통과 영광의 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과 아름다움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마주하는 깊은 이해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성남아트리움
뮤지컬캠프



Dream on Stage

Seongnam
Atrium

뮤지컬갈라콘서트



2024. 10. 26 (토) 17:00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총감독 박명성 | 연출 이재은 | 음악감독 오민영 | 안무감독 서병구



전석 무료

피플

배우 이자벨 위페르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샤인>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트렌드

진화하는 캐릭터 IP 마케팅

생활 속 디자인

자동차에 대하여

C
U
L
T
U
R
E
+



배우 이자벨 위페르

냉기와 온기와 광기 사이...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 배우

ISABELLE HUPPERT.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엄청 고생하고 갔어요. 매니저 없이 한국에 혼자 와서 삶은 달걀만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나이 들어 왜 고생을 자청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연기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있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영화 <다른 나라에서>²⁰¹²에 이자벨 위페르와 함께 출연했던 배우 윤여정의 기억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2011년 여름 전북 부안군 모항마을에서 촬영했다. 위페르는 같은 해 5월 사진전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홍상수 감독을 만났고, 출연 제의를 받아 흔쾌히 받아들였다. 홍 감독은 제작비 1억 원 남짓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배우들은 개런티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적은 돈을 받고 출연했다. 위페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돈을 바라지 않고 낯선 ‘다른 나라에서’ 낯선 배우들과 함께했던 모습만으로도 배우 위페르의 연기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위페르는 ‘유명’이나 ‘세계적’이라는 수식만으로는 형용이 부족한 배우다. 여러 숫자가 그의 배우 인생을 대변한다. 1971년 TV 드라마로 연기에 입문한 그는 칸 국제 영화제와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각각 두 차례 최고 여자 배우상을 받았다. 칸 영화제에서는 <바이올렛 노지에르>¹⁹⁷⁸ <피아니스트>²⁰⁰¹로,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여자들 이야기>¹⁹⁸⁸ <의식>¹⁹⁹⁵으로 트로피를 품었다. 베를린 국제 영화제

에서는 <8명의 여인들>²⁰⁰¹로 예술 공헌상을 받았고, 2022년에는 명예 황금곰상을 안았다. 한국 배우 고 강수연(<씨받이>로 베니스 영화제 여자 배우상)과 전도연(<밀양>으로 칸 영화제 여자 배우상), 김민희(<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베를린 영화제 여자 배우상)의 성취를 합쳐 놓아도 닿지 못할 이력이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상을 모두 수상한 배우는 위페르를 제외하고 줄리에트 비노슈밖에 없다.

놀라운 기록은 더 있다. 위페르는 프랑스 최고 영화상인 세자르상 배우 부문 후보에 16회 올랐다. 역대 최대 기록이며 수상은 두 차례다. 위페르의 출연작 22편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역시 세계 어떤 배우보다도 많다. 출연한 장편 극영화만 100편이 넘는다 해도 놀라운 성과다. 위페르는 <엘르>²⁰¹⁶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 후보가 되기도 했다.

연극 무대 활약 역시 눈부시다. 프랑스 최고 연극상인 몰리에르상 후보로 7회 지명됐고 2017년에는 몰리에르상 공로상을 받았다. 스크린과 무대를 아우르는 배우는 많지 않고, 양쪽 모두 두각을 나타내는 이는 더 드물다. 위페르의 다양한 연기력이 놀라운 이유다. 스크린과 무대 밖 활약 역시 눈에 띈다. 위페르는 2009년 칸 영화제, 올해 베니스 국제 영화제의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1세기 유럽 영화를 대표하는 얼굴

숫자만 휘황한 게 아니다. 과대 포장된 연기가 아니다. 위페르의 연기는 매번 경이를 부른다. 그는 냉기와 온기를 종종 오가고 광기를 품을 때가 꽤 있다.

최근작만 봐도 그렇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출연한 <엘르>를 돌아보자. 위페르는 매력적이고 매사 자신감 넘치는 여성 미셸을 연기했다. 미셸은 한밤중에 자다가 괴한이 집에 침입하는 사건을 겪는다. 그는 불안감에 떨다가 괴한을 추적한다. 과거 아픈 기억이 있는 미셸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괴한에게 대갚음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복수하는 미셸의 행동은 쾌감을 준다. 마치 유명 패션 잡지 ‘엘르’의 커버 모델 같은 관음증의 대상이 되기 싫다는 듯한 미셸의 모습은 여성 누구라도 환호할 만하다. 무표정 속에 자신만만함과 냉기를 표현해 내는 위페르이기에 가능한 역할이었을 터다.

<피아니스트>는 어떨까. 위페르는 유명 음악 학교 피아노 교수로 젊은 공대생과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에리카를 연기했다. 에리카가 사회 통념을 넘어서 사랑으로 치달을 때 관객은 위페르가 뿜어 내는 정념에 손을 꼭 쥐게 된다.

도박적인 영화에서 귀기 어린 연기만 보여 준 건 아니다. <다가오는 것들>²⁰¹⁶에

고교 철학 교사 나탈리로 출연해 늦가을 햇볕 같은 연기를 펼치기도 했다. 나탈리는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외도, 딸의 결혼을 동시에 겪으며 인생 내리막길을 걷는다. 나탈리는 세월을 거스르지 않고 눈물과 한숨으로 중년의 삶을 받아들인다. 위페르는 인생의 알곡은 변곡점을 담담한 표정으로 표현해 내며 나탈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낸다.

규정지을 수 없음으로 규정될 연기

위페르는 중산층 여인을 자주 연기했으나 젊은 시절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20~30대에는 하층 계급의 삶을 연기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천국의 문>¹⁹⁸⁰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천국의 문>은 미국 ‘존슨 카운티 전쟁’¹⁸⁸⁹⁻⁹³을 소재로 하고 있다. 와이오밍주 토착민과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의 무력 충돌을 다뤘다. 위페르는 이 영화에서 토착민들 사이에서 노리개 취급받는 윤락녀 엘라를 연기했다.

캐나다 퀘벡주(프랑스어를 쓰는 곳이다)에서 온 엘라는 어디서나 하대받는 직업 을 가졌으나 자존심 강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서는 인물이다. 그는 관객이 예상치 못한 로맨스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냉대받으면서도 자아가 만만치 않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면서 불의에 분연히 일어서는 엘라는 위페르의 다면적인 얼굴을 통해 스크린에 구현된다. <천국의 문>은 개봉 당시 혹평을 듣고 재앙적인 흥행 기록을 남겼으나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저주받은 걸작’으로 종종 소환된다. <천국의 문>이 재평가받는 데 있어서 위페르가 2할 정도의 몫을 했다고 본다.

다종다양한 역할을 늘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온 위페르의 연기는 ‘규정지을 수 없음으로 규정할 수 있는’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위페르의 진정한 강점은 연기라는 기교가 아니다. 역할에 대한 포용성과 유연성이 데뷔한 지 53년이 되고도 여전히 전성기인 위페르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는 유럽과 할리우드를 오가며 연기를 했고 <클레어의 카메라>²⁰¹⁸와 <여행자의 필요>²⁰²⁴ 등 홍상수 감독 영화에 만도 세 번이나 출연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독일, 포르투갈,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대만 무대에도 섰다.

2011년 5월 인터뷰로 만났을 때 위페르는 “영화는 서로의 문화를 평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이라고 말했다. 문화를 통해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그의 의지가 읽히는 발언이다. 11월 1~2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상연될 위페르 주연 연극 <메리 스투어트>는 그의 열린 마음만으로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샤인¹⁹⁹⁷
감독 스콧 히스 출연 제프리 러시, 노아 테일러 외

영화 <샤인>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운명을 뒤바꾼 ‘음악의 힘’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전문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씨네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주)라이크콘텐츠



흔히 라흐마니노프¹⁸⁷³⁻¹⁹⁴³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악마의 협주곡’으로 불린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건 1996년 영화 <샤인^{Shine}> 덕분이기도 하다. 호주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실화에 바탕을 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이 협주곡으로 콩쿠르 우승을 거둔 뒤 신경 쇠약으로 쓰러진다. 이 협주곡은 그에게 우승의 영광과 정신 질환으로 인한 혹독한 치료라는 시련을 모두 안겨 준 셈이다.

영화의 성공으로 주인공 역을 맡았던 배우 제프리 러시는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받았다. 실제 주인공인 헬프갓의 삶과 음악 역시 재조명됐다. 더불어 이 협주곡도 ‘미치지 않고서는 연주할 수 없는 작품’으로 신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과 영화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헬프갓은 런던 유학 이전인 호주 시절부터 이미 이 협주곡을 콩쿠르에서 연주했다. ‘악마의 협

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는 다분히 영화적인 설정인 셈이다. 영화에서 묘사된 폭압적인 아버지상 역시 헬프갓의 가족 내부에서도 이견과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음악적으로 더욱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지금은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 결선에서 즐겨 연주하는 '비장의 카드'가 되었다는 점이다. 상전벽해에 가까운 이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협주곡이 탄생하기 전후의 역사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타고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이기도 했던 라흐마니노프는 1904~06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의 지휘자를 맡았다. 이 시기에 그는 차이콥스키와 글린카, 무소르스키와 보로딘, 립스키코르사코프까지 모두 11편의 오페라를 89회나 지휘했다. 두 편의 오페라도 직접 쓰고 초연했다. 하지만 볼쇼이 극장 시절은 동시에 지휘자와 작곡가, 피아니스트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이 커진 시기이기도 했다. 결국 1906년 그는 극장에서 사임한 뒤 가족과 함께 드레스덴으로 총총 떠났다. 드레스덴에 정착한 직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은둔자처럼 지내고 있다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으며 아무 데도 가지 않아.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기분이 무척 좋다네."

과중한 책무에서 벗어난 그는 교향곡 2번과 피아노 소나타 1번, 교향시 '죽음의 섬'까지 대작을 다시 쏟아 내기 시작했다. 피아노 협주곡 3번 역시 드레스덴 시절의 끝자락에 착수해서 1909년 9월 23일 러시아 이바놉카의 별장에서 최종 완성했다. 당초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폴란드계 미국 피아니스트 요제프 호프만 1876-1957에게 헌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호프만의 거절로 작곡가 자신이 직접 초연을 맡았다.

작곡가는 대서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 무음^{무음} 피아노 건반으로 자신의 곡을 연습했다고 한다. 이 협주곡을 완성한 직후 피아노 협연과 독주, 지휘까지 26차례의 미국 순회공연이 뽀뽀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협주곡도 미국에서 빛을 보았다. 1909년 11월 28일 뉴욕 심포니(지휘 월터 담로슈)와의 협연으로 초연했고, 두 달 뒤인 1910년 1월 16일 카네기 홀에서 구스타프 말러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과 또다시 협연했다. 세기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두 음악가는 이렇게 대서양 건너편에서 조우했다.

지금은 믿기 힘들지만 미국 초연 직후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하지만 이 협주곡의 운명을 뒤바꾼 일등공신이 있다면 역시 러시아 출신의 전설적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¹⁹⁰³⁻¹⁹⁸⁹일 것이다. 호로비츠는 뉴욕 스타인웨이 전시장 지하

에서 작곡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협주곡을 피아노로 함께 연주했다. 라흐마니노프는 "호로비츠는 통째로 곡을 집어삼켰다"며 경탄했다. 정확히 서른 살 차이었지만 그 뒤로 둘은 의기투합했다. 호로비츠 역시 작곡가에 대해 "라흐마니노프가 거대한 숲이라면 나는 크든 작든 한 그루의 나무일 뿐"이라며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후기 낭만주의와 현대의 갈림길에서 라흐마니노프는 언제나 전자의 길을 택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최후의 낭만주의자'로 불린다. 이 협주곡 1악장 도입부의 유명한 단조 주제 선율은 러시아 정교의 성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라흐마니노프는 이 주제에 대해 "민요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져오지 않았다. 저절로 쓰였으며 성악가가 노래하듯이 피아노를 통해서 선율을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한 옥타브 차이의 단선율을 양손으로 연주하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언뜻 단순하게 보이지만 곧바로 작곡가 특유의 화려하면서도 복잡한 형태로 급격하게 따리를 틀기 시작한다.

2악장은 '간주곡'이라는 악장 표기처럼 휴식 없이 3악장으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마지막 3악장에서는 첫 악장의 주제들이 변주되어 다시 등장하면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물론 그 끝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종결부가 기다린다. 작곡가 특유의 네 음으로 이뤄진 결승점을 무사통과하는 순간, 우레 같은 청중의 박수갈채도 예고되어 있다. '악마의 협주곡'으로 불렸던 난곡도 어느새 연주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된 셈이다.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3번
블라디미르 호로비츠(피아노), 유진 오먼디(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Sony Classical, CD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하며 인기의 불씨를 지폈고, 수차례 음반으로도 남겼다. 음질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호로비츠의 음반들 중에서는 간혹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후대의 전범^{典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위대한 피아니스트'에서 뉴욕 타임스 출신의 평론가 해럴드 손버그는 호로비츠의 연주에 대해 '라흐마니노프 자신도 결코 도달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악장의 클라이맥스를 천둥 치듯이 내려침으로써 오케스트라 소리를 압도했다'고 평했다.

오투기 공식 캐릭터 멜로우즈 © 오투기



진화하는 캐릭터 IP 마케팅

귀여움은 어째서 거대 산업이 되었을까?

글 서민경 디자인 칼럼니스트

텍스트 공방 대표. 디자인과 공예 영역에 걸쳐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디자인과 큐레이팅을 전공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거쳐 월간 <디자인>에서 에디터로 일했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Character

Marketing



에잇세컨즈X에버랜드 바오패밀리 협업 상품 © 삼성 C&T

IP

귀여움을 느끼는 감정은 중독적이다. 귀여운 동물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몸에 비해 큰 머리, 짧고 통통한 팔다리, 큰 눈과 잔뜩 부푼 볼을 한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장면을 보면 절로 미소가 우러난다. 오늘날 등장하는 캐릭터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도 바로 '귀여움'이다. 위협적이지 않은 귀여움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캐릭터 IP 산업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본다.

이론적으로 증명된 귀여움의 요소

아름다움은 주관적이지만 귀여움을 느끼는 감정에는 인종과 세대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 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는 1943년, 아기의 전형적인 신체적 특징이 귀여운 감정과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리켜 ‘베이비 스키마’라고 정의했다. 오늘날 사랑받는 캐릭터의 비밀도 바로 그 귀여움에 있다. 1928년 탄생한 디즈니 미키마우스는 세월이 흐르면서 동안으로 거듭났다. 미국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에 따르면, 미키마우스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비해 이마는 둥글게 솟아오르고 눈이 더 커졌으며 코가 짧아졌다고 한다. 대중들이 선호하는 외모에 맞게 미키마우스도 나이를 거꾸로 먹은 셈이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도 귀여움을 앞세운 슈퍼스타다. 코로나19로 방문객 수가 톱 떨어졌던 2020년,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의 존재는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둥글둥글한 체형을 가진 초식 동물 판다의 무해한 귀여움은 수많은 랜선 이모와 삼촌을 양산했다. 덩달아 자체 기획한 푸바오 굿즈와 협업 상품이 완판 행진을 거듭하며 좋은 반응을 얻자,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바오 패밀리’ 상표를 출원했다. 푸바오 가족을 콘텐츠로 활용해 본격적으로 IP지식재산권 마

↓ 2023년 더현대서울에서 열린 푸바오 팝업 스토어

→ 신한카드에서 출시한 미니언즈와 잔망루피 캐릭터 카드 © 신한카드



© 삼성 C&T

케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시한 푸바오 관련 굿즈는 무려 400여 종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2주간 열린 더현대서울 팝업 스토어에서는 무려 10억 원의 매출 이익이 발생하며 화제가 됐다.

푸바오 굿즈를 소비하는 연령층의 대부분은 20~30대 성인이 차지한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 상품이 더 이상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캐릭터 카드 상품 출시에 공을 들이는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2월 KB국민카드가 출시한 ‘KB국민 에버랜드 판다카드 푸바오 에디션’은 3일 만에 1,000매가 완판되었고 추가 발급분 4,000매도 동이 난 상태다. 사실 캐릭터 카드 열풍의 시초는 2017년 카카오뱅크에서 출시한 프렌즈 체크카드였다. 카

카오프렌즈의 대표 캐릭터 ‘라이언’ ‘무지’ ‘콘’ ‘어피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한 이 상품은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건 발급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체크카드가 카카오프렌즈 팬들의 굿즈로 소비되면서 소셜 미디어에 프렌즈 카드 발급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기도 했다. 이후 미니언즈, 펑수, 잔망루피, 짱구, 핑크퐁과 아기상어 등이 카드 플레이트에 등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캐릭터 카드 마케팅은 실물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보다 스마트폰 간편 결제와 앱 카드에 익숙해진 젊은 층을 잡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된 셈이다. 여러 후기를 살펴보면 카드사 혜택은 관심 밖이고 단순히 귀여워서, 또는 해당 캐릭터의 팬이라서 카드를 만들었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카드 업계는 ‘록인lock-in’ 효과를 기대하며 높은 캐릭터 라이선스 비용을 감수한다. 마케팅 용어인 록인 효과란 소비자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물쇠 효과’ ‘고착화 효과’라고도 불린다. 쉽게 말해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안드로이드폰 대신 아이폰을 사용하고,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이메일도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플랫폼의 서비스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며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평소 같으면 각종 혜택과 가성비를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귀여운 캐릭터 앞에서는 무장 해제된다. 귀여움으로 유인하는 캐릭터 IP 산업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다.





무한히 확장하는 슈퍼IP

지난 9월 푸바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영화 <안녕, 할부지>가 개봉할 정도로 푸바오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이는 판다 특유의 귀여운 외모와 행동거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예정된 이별을 앞두고 사육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푸바오의 성장 서사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이다. 푸바오의 스토리가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면 최근 시즌 4까지 방영된 유아용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은 제2의 뽀로로라는 타이틀을 달고 인기 급상승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사랑의 하츠펙>이 개봉해 역대 국산 애니메이션 중 3번째로 관람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티니핑 시리즈 제작사인 SAMG는 캐릭터 IP 다각화에 몰두하는 중으로 지난해부터 '이모션 캐슬'이라는 종합 브랜드를 론칭하고 테마파크부터 패션, 식음료, 교육, 공연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SAMG는 앞으로 기존 타겟 4~7세 영유아에서 나아가 10대 이상 연령층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캐릭터 IP와 협업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걸림돌이 있다. 또 해당 캐릭터가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하게 따져 봐야 할 문제다. 이에 푸바오나 티니핑처럼 자체 캐릭터를 활용해 IP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1 현대백화점의 캐릭터 힌디를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용품
2 롯데백화점 캐릭터 벨리곰
3 캐치 티니핑 TV 시리즈 포스터

늘어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캐릭터 시장의 규모가 2005년 2조700억 원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부터 연평균 4.4%씩 증가해 2025년에는 16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이트진로는 두꺼비, 빙그레는 '빙그레우스', 오투기는 '엘로우즈'를 개발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중이고, 현대백화점의 강아지 캐릭터 '힌디', 롯데백화점의 '벨리곰'도 각자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귀여운 캐릭터에 열광하는 MZ세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과 비용 투자를 통해 개발한 캐릭터도 탄탄한 서사와 콘텐츠 지속성이 없다면 대중들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져 버린다. 귀여운 캐릭터를 개발해 굿즈로 판매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뽀로로처럼 오리지널 콘텐츠가 팬덤을 형성하면서 오랜 시간 꾸준히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슈퍼IP'라고 부른다. 성남문화재단도 글로벌 슈퍼IP를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오는 10월, 양정웅 감독과 함께 슈퍼IP 캐릭터와 콘텐츠를 차용한 체험존과 몰입형 아트존, 미디어아트, 설치물 등을 연출할 예정이라니 기대해 봐도 좋겠다.



About

Cars



자동차에 대하여

이동 수단 이상의 상징물

글 김신 디자인 저널리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월간 <미술공예> 기사를 거쳐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13년에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있었다. 2014년부터 칼럼니스트로 독립해 디자인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루이지 루솔로의 <자동차의 역동성>, 1913년. 자동차의 스피드에 열광한 이탈리아 미래파 회화

세상에 나온 새로운 물건이란 모두 실용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고 옷이 생긴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최초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분명 상징적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토기¹⁾는 우연히 발명되었고, 처음에는 부족의 우두머리 같은 권력자들이 사용했다. 자연스럽게 그 최초의 그릇은 권력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최초의 쓸모를 갖게 된다. 최초의 직조 기술로 만든 옷, 최초의 목수 기술로 만든 의자 역시 그랬을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기술이 보편화되고 그 실용적 쓰임에 눈을 뜨면 그 신기한 물건도 누구나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용품이 된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떨까.



스카를 벤츠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 1885년

프랑스 자동차 레이싱을 촬영한 자크 앙리 라르티그의 사진, 1912년. 외부에 노출된 레이서는 고글과 마스크를 썼다

사치품이자 지위재로

자동차도 같은 진화의 길을 걸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독일의 자동차 발명자인 카를 벤츠(Karl Friedrich Benz, 1844~1929)와 고틀리프 다임러(Gottlieb Wilhelm Daimler, 1834~1900)는 한동안 자동차의 실용성에 대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 사람들은 이 혁신적인 물건을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지금과는 현격하게 다른 당시의 이동 문화를 상상해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들은 자동차 없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자동차가 절박하게 필요해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발명 자체가 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자동차의 가치를 알아준 건 역시 부자들이었다. 특히 사치와 멋을 아는 프랑스 부자들이 먼저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최초의 자동차 잡지가 생기고 최초의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렸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제야 판매의 돌파구를 알아챘다. 그들은 속도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고급 사치품으로서 자동차를 적극 광고했다. 무엇보다도 말이 마차를 끌지 않고 자체 동력으로 가는 신기한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것은 상당한 우월감을 준다는 점에서 부자들을 매혹시켰다.

그러다 20세기 초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가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다. 그는 조립 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 가격을 대폭 낮췄다. 이때 자동차는 지위재(地位財)로서의 역할을 그만두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금세 고급 자재와 스타일링이

등장해 다시 사치품으로서 자동차의 구실은 더욱 강화되었다. 지금도 개인이 소유한 물건 중 자동차만큼 사회적 지위와 부를 쉽게 과시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내 집을 자랑하려고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자동차는 언제나 끌고 가서 보여 줄 수 있지 않은가.

욕망을 깨운 스피드

이처럼 초기 자동차의 목적은 단순히 이동이라는 실용성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 우월감의 과시가 더 컸다. 이미 말과 마차를 소유한 부자들은 자동차로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스피드다. 하지만 뚜껑이 없는 초기 자동차는 자동차 '안'이 아니라 '위'에서 운전했다고 할 정도로 몸이 외부로 노출되었다. 심지어 늘 흠이 튀어 내부가 쉽게 더러워졌고 사고가 나면 앞 유리가 운전자의 얼굴로 날아오는 터라 아예 앞 유리를 제거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고글과 마스크, 방수 옷은 운전자의 필수 장비였다. 또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운전자의 몸은 덜덜거리며 요동을 쳤다. 이처럼 자동차 운전은 말을 타는 것처럼 격렬하게 스피드를 느끼는 일이었다.

자동차 운전이 주는 자극은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완전히 새로운 쾌락이었다. 이 쾌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극도로 위험한 모험이기도 했다. 자동차 경주 대회는 이런 쾌락을 만끽하고 가장 위험한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인 운전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자동차 경주 대회는 점점 개인의 영광을 넘어 제조사와 국가의 기술력과 자존심 대결로 승화돼 전쟁에 비유될 정도였다. 사실 오늘날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경쟁은 자동차 경주 대회가 주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Jacques Henri Lartigue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 '스피드를 향한 열광'이라는 뚜렷한 문화 현상을 낳았다. 예술가들은 자동차의 스피드에 압도되어 미래 파와 같은 새로운 양식을 낳기도 했다. 이제 스피드를 온몸으로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한 자동차로 깨끗한 포장도로를 달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질주 욕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기계 미학에 매료된 예술가들

사람들이 자동차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던 초기 시절 제조사들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는 자동차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것이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마차에서 온 형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다. 특히 스피드를 향상시키려는 과정에서 마차와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만의 매력을 갖추게 된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사진 작가 자크앙리 라르티그Jacques-Henri Lartigue, 1894~1986가 찍은 자동차 경주 대회 사진을 보면, 레이싱 카의 그 기계적 외관에 반하지 않을 남자는 없을 것이다.

모던 건축의 거장들인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도 자동차에 매료된 대표적 인물이다. 발터 그로피우스는 직접 자동차를 디자인했다. 르코르뷔지에는 한발 더 나아가 모던 건축의 경전과도 같은 『건축을 향하여』에서 과거의 건축 양식만을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건축가들을 향해 자동차를 보라고 외친다. 그는 표준화로 나아가는 현대 산업 기술 문명의 아이콘으로서 자동차를 묘사한다. 자동차는 마차와 완전히 결별했는데, 집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한다. 그리하여 “집은 살기 위한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저 유명한 명제를 말하기에 이른다. 모더니즘의 기계 미학은 자동차 디자인에 많은 빛을 진 셈이다. 기계 미학의 시대를 지나 자동차는 유선형 외관의 매끈한 표면을 자랑하는 시대를 연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1955년에 출시된 시트로엥 DS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거대한 고딕 성당과 같다. 익명의 예술가들이 열정을 바쳐 만든 결과물이라는 데서 그렇다. 자동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매력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최고의 창작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한다. 자동차는 스피드를 위한 연금술로 창조되지만 이미지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모든 제조사들은 신차 발표회와 모터쇼에서 자동차 판매에 있어 이미지와 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량 생산과 ‘모델 T’의 탄생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는 대중화의 길을 걸었다. 헨리 포드는 1913년, ‘조립 라인’이라는 혁신적인 생산 기술을 창조했다. 그전까지 자동차는 한자리에 있고, 기술자들이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면서 하나의 차가 완성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 롤랑 바르트가 고딕 성당에 비유한 시트로엥 DS, 1955년. 시트로엥 DS는 20세기 자동차들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다



생산한 자동차는 비쌀 수밖에 없어서 자동차는 그야말로 부자들의 전유물로 머물렀다. 포드가 발명한 조립 라인에서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여러 부품들이 결합돼 점차 완성되어 간다. 이 생산 라인에서는 끊임없이 자동차들이 이동하고 한 가지 임무만을 맡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만히 서서 생산에 참여한다. 조립 라인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그 결과 자동차 가격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산된 차가 그 유명한 포드 모델 T이고, 무려 1천5백만 대를 팔았다. 자동차 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이제 노동자들조차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포드가 발명한 조립 라인은 전 세계 자동차 공장으로 퍼졌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를 만드는 모든 공장으로 퍼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를 열어젖혔다. 오늘날의 낭비적인 소비주의 사회는 바로 자동차 생산으로 시작된 것이다.



포드 모델 T의 코펜하겐 조립 라인 공장, 1923년

쉐보레부터 캐딜락까지

잘 나가던 포드 모델 T는 1927년에 종말을 고했다. 포드의 대량 생산 방식은 다양성이 없다는 결정적인 위험 요소가 있었다.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포드 모델 T를 구입하지 않았다. 이를 간파한 GM의 경영자 알프레드 슬론 Alfred Sloan, 1875~1966은 자사가 보유한 여러 브랜드로 차별화된 자동차를 생산했다. 최고급 모델 캐딜락부터 뷰익, 폰티악, 올즈모빌, 그리고 가장 저렴한 쉐보레까지 타깃이 다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었다. 슬론은 또한 자동차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회사에 스타일링 부서를 처음으로 갖춘 것이다.



캐딜락 잡지 광고. 1927년, GM은 포드와 달리 다양한 모델로 차별화했다

이전까지 자동차는 엔지니어들이 설계했던 반면, 슬론은 기업으로서 최초로 디자이너를 고용했다. 그가 고용한 디자이너 할리 얼 Harley J. Earl, 1893~1969은 할리우드의 스타 고객을 위해 획일화된 양산 차를 단 하나의 차로 개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슬론에게 발탁되었다. 슬론은 각 브랜드별로 서로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는 일, 그리고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치품으로서 외관을 매력적으로 꾸며 소비자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탁월한 경영자였다.

그는 또한 자동차 모델의 디자인 변화 주기를 더욱 빠르게 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차가 멀쩡한데도 진부하게 느껴 새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것을 '역동적인 진부화' dynamic obsolescence'라고 불렀다. 이는 1930년대에 '계획적 진부화' planned obsolescence'라는 소비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체계화된다. 현대인들이 새 상품을 본 뒤 이미 자기가 구매한 물건에 금방 싫증을 느끼는 현상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차가 대중화되자 자동차의 신비로운 이미지도 점차 사라졌다.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자동차를 전제한 것으로 차 없는 삶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체의 신분도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다. 구매와 사용 과

정에서 자동차처럼 극적으로 천상에서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는 사물도 없을 것이다. 광고에서, 잡지에서, 모터쇼에서, 소름에서 자동차는 예술품처럼 묘사되고 대접 받는다. 영화 속 주연 배우처럼 자동차는 늘 환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내가 소유하기 전 자동차는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난 구불 구불한 길을 부드럽고 미끈하게 달려가는 그런 이미지다. 그런 차를 대하는 소비자의 마음은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차가 내 차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면 어느새 매일 마주치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된다. 처음엔 눈부시게 보였던 디자인도 점차 무덤덤해지고 만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에 대한 애정도 식고 청소나 정비도 소홀해지며 차는 고장이 나고 낡아 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동차만큼 격렬하게 일하는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 또 있을까. 가족의 발이 되어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기계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자동차는 사람처럼, 내 배우자처럼 병들고 늙어 가며 고독해진다. 다만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차는 결국에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와의 이별, 그 이상의 의미

한 자동차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애완동물처럼 자동차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 차와 이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내 차가 감정적으로 싫어질 수 있다. 갑자기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고와 같은 나쁜 기억의 저장소가 되어서, 높아진 주인의 위상에 걸맞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새로 나온 차에 반해 버려서... 등등. 이런 경우는 이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돈 많은 주인일수록 이혼할 확률이 높다. 평범한 주인은 보통 이별을 택한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차에 정말 깊은 애정을 지녀서일 수도 있다. 이별은 차가 기능적으로 더 이상 주인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없을 때 찾아온다. 차와 이별하는 순간이 올 때 비로소 주인은 차의 가치를 알게 된다. 보편적인 차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나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내' 차의 가치다. 내 차는 수많은 동일한 모델 중 하나일지라도, 나와 함께한 순간부터는 모든 여행과 기억 그리고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차가 된다. 그렇게 차는 가족의 일원이 된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도 차와 정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차와의 이별이 싸구려 물건을 버리는 것과 같을 수 없다. "수고했어" "미안했어" "고마웠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차는 고철이 되어 눈앞에서 사라진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이다.

20
2004-2024

성남문화재단

UNIVERSAL BALLET The Nutcracker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24.11. 29 FRI 7:30 PM | 11. 30 SAT 3 PM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R 9만원 | S 7만원 | A 5만원 | B 2만원 예매 [interpark](#) 티켓 1544-8117 문의 031-783-8000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10+11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SMART NEWS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SEONGNAM+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October-November 2024

Calendar + Map +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2024년 10 + 11월

다채로운 음악 콘서트와 전시회부터 드라마틱한 춤과 연극까지,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4.10

① 오페라하우스 ② 콘서트홀 ③ 앙상블시어터 ④ 성남아트리움 ⑤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3	4	5	6
		■ ⑩ 무료 정기상영 <파리 폴리>(14:00)	② 발레 뮤지컬 <미녀와 야수>(14:00) ③ 콘서트 페스티벌 (15:00) ④ 도네이션퍼포먼스 체인지 오브 시즌 10 (19:30) ⑤ 배누스토 분당오케스트라 (17:00) ■ ⑩ 성남다시영화제 <미드 90>(13:00) <말에 대하여>(16:00), <후야유>(19:30)	② 제이엘제임버라이어(20:00) ③ '우리들의 하모니' 정기공연 (19:30) ■ ⑩ 성남다시영화제 단편선 <베리어프리상영(14:00), <고양이를 부탁해>(큐브 2층 야외광장) (19:30)	■ ⑩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17:00) ③ 코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17:00) ④ 어울림한마당 문화축제(14:00) ■ ⑩ 성남다시영화제 <투 올드 합창 키드>(13:00), <스윙걸즈>(16:00)	③ DF예술단 정기연주회(14:00) ④ 2024 유망신예음악회(17:00)
7	8	9	10	11	12	13
■ ⑩ 월요시네클럽 <원스>(13:30)	③ 가천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③ 아베크피아노앙상블(17:00) ■ ⑩ 특별상영 <로보카폴리 스페셜: 사막구조대 이야기>(14:00) ■ 성남아트센터 광장 야외 상영회 <로보카폴리 스페셜: 사막구조대 이야기>(17:00), <로봇 드림>(18:30)	③ 강남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19:30) ④ 마이심포니아 클래식축제(19:00)	② 서울퀸템포라이어 정기연주회(19:30)	③ 가족뮤지컬 <에그박사-연구소에서 생긴 일> (11:00, 14:00, 16:30) ③ 성남예총 악극제(16:30) ④ 뮤지컬 <전천당 시즌3> (11:00, 14:00, 16:30)	③ 가족뮤지컬 <에그박사-연구소에서 생긴 일> (11:00, 14:00, 16:30) ③ 분당챔버오케스트라(15:00) ③ 버디색소폰앙상블(18:00) ④ 뮤지컬 <전천당 시즌3>(11:00, 14:00)
14	15	16	17	18	19	20
■ ⑩ 월요시네클럽 <싱 스트리트>(13:30)		■ ⑩ 무료 정기상영 <클레어의 카메라>(14:00)	■ ⑩ 마티네 콘서트 (11:00) ③ 필로스장예인무용단의 천사들의 날갯짓 (13:30) ④ 콰이어가이스트 정기연주회(19:30)	② 분당남성합창단 2024년 정기연주회 (19:30)	③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14:00, 18:00) ③ 아주여성합창단/아주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19:00) ④ 뮤지컬 <고양이 해결사 캄냥> (11:00, 14:00, 16:00)	③ 2024 가을음악회(19:00) ④ 뮤지컬 <고양이 해결사 캄냥> (11:00, 14:00, 16:00)
21	22	23	24	25	26	27
■ ⑩ 월요시네클럽 <올모스트 페이머스>(13:30)	③ 바리톤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9:30)	■ ⑩ 무료 정기상영 <다가오는 것들>(14:00)	③ 성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④ 구민희 피아노 독주회		■ ⑩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양 피레스 <겨울 나그네>(17:00) ③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14:00, 16:00) ■ ④ 성남아트리움 뮤지컬 캠프 <Dream on Stage>(17:00)	④ 성남 박태현 전국창작동요제(17:00)
28	29	30	31			
■ ⑩ 월요시네클럽 <멋진 하루>(13:30)	③ 스윗하모니 오케스트라(19:30)	③ 금난새의 영화음악 이야기(19:30) ④ 마이심포니아 클래식축제(19:00) ■ ⑩ 무료 정기상영 <호두까기인형과 4개의 왕국>(14:00)	③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라흐마니노프 협주곡(19:30) ④ 드림은무용단 정기공연(19:30)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2월 16일~12월 22일	상설전시실
■ 성남작가조명전 4 <고해속: 공간을 유평하는 대화>	8월 30일~10월 20일	반달갤러리
■ 성남의 얼굴전 <리게더REGATHER>	9월 6일~10월 13일	기획전시실
■ 성남의 얼굴전 야외 조각전 <리게더REGATHER>	10월 5일~12월 5일	성남아트센터 야외 일대
■ 지역예술가교류전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	11월 1일~12월 1일	기획전시실
■ 성남작가조명전 5 <서수영: Heritage Code>	11월 1일~12월 22일	반달갤러리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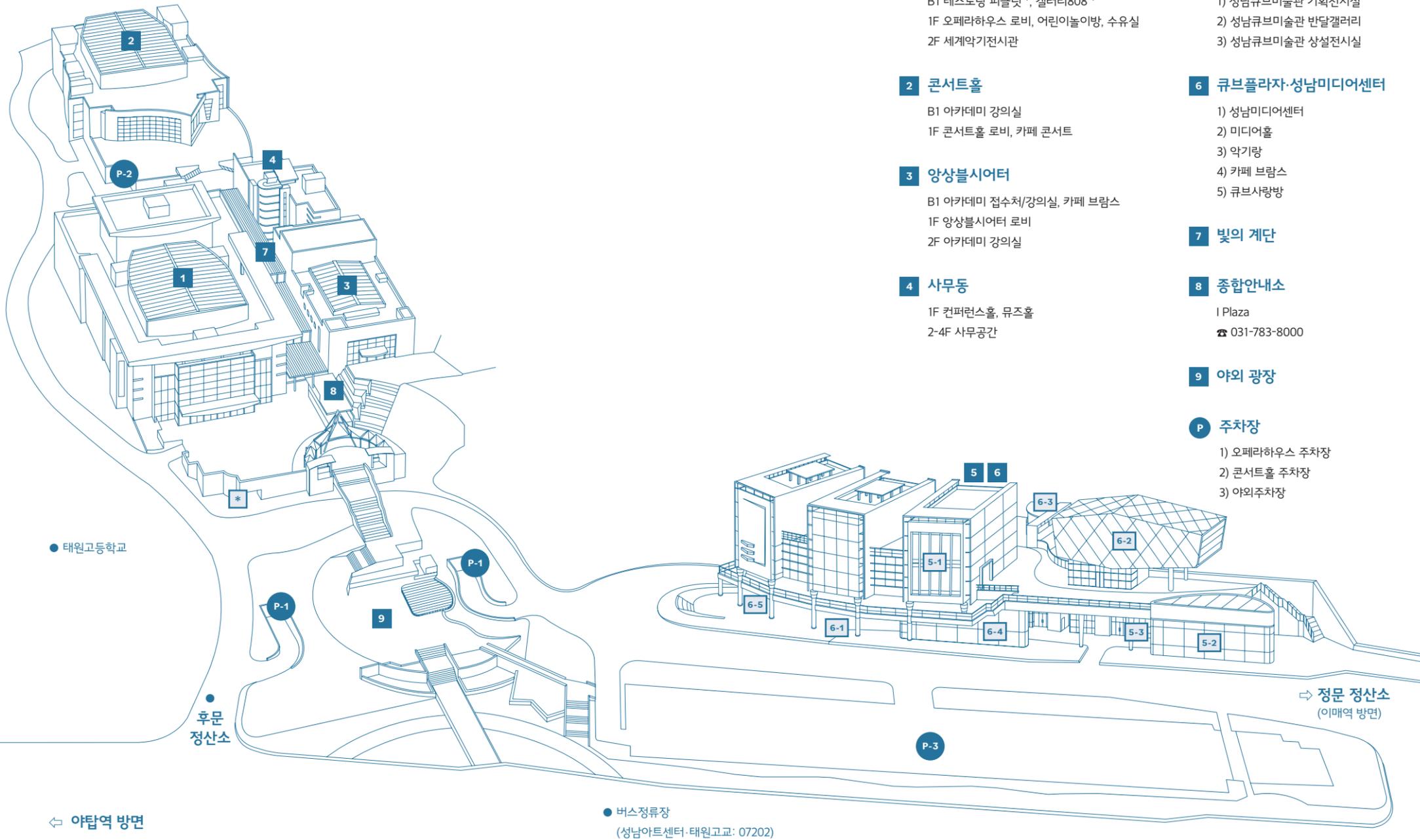
성남아트페어	10월 2일~10월 9일
2024 남한산성 공과회망	10월 12일~10월 19일
2024 생활문화동호회축제 특별전	10월 23일~11월 3일
제25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11월 5일~11월 14일
제34회 현대염색작가협회전	11월 17일~11월 24일
知音 여성작가회 A WALK: 삶에 관한 이야기	11월 17일~11월 24일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위 일정은 2024년 9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16회 숲내를 흐르는 숨결전	11월 17일~11월 24일
경기향토작가 초대전(성남미술협회)	11월 27일~12월 4일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1) 성남미디어센터
2) 미디어홀
3) 약기랑
4) 카페 브람스
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8 종합안내소

I Plaza
☎ 031-783-8000

9 야외 광장

P 주차장

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2) 콘서트홀 주차장
3) 야외주차장



2024 성남페스티벌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축제, 2024 성남페스티벌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성남 곳곳을 찾아온다. AI, 로봇 등 성남이 지닌 4차 산업 동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의 역동적인 에너지, 그 속에 자리한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문화예술 인프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도시 성남의 매력들이 새로운 차원의 융복합 예술로 펼쳐진다. 10월 11일(금)~13일(일) 3일간 탄천 메인 행사장에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선보이는 <인사이드 아웃> 테마의 <이머시브 이모션스>를 경험할 수 있다.

장소 | 탄천 메인 행사장(탄천종합운동장 앞) 외 성남시 곳곳
일시 | 10월 5일~10월 13일

문의 | 031-783-8000

Q	Monthly Guide
	<p>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p> <p>풍부하면서도 중후한 음색으로 긴 세월 독일 예술가곡 스페셜리스트로 자리한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와 함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로 찾아온다. 가을의 끝자락, 두 대가가 들려주는 <겨울 나그네>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10월 26일(토) 오후 5시</p>	<p>티켓 R석 80,000원, S석 60,000원 문의 031-783-8000</p>
--------------------------------------------------------------	-------------------------------------------------------------------

	<p>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투어트></p> <p>세계 공연예술계의 명연출로 꼽히는 '이미지극의 대가' 로버트 윌슨과 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사벨 위페르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연극 <메리 스투어트>. 2019년 파리 이후 유럽 주요 극장에서 극찬받은 이 작품은 1587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여왕 메리가 자신의 운명을 뒤흔드는 시대에 맞서 싸우는 독백을 다룬 1인극이다. 대배우 위페르의 연기를 영화가 아닌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p>
-------------------------------------------------------------------------------------	------------------------------------------------------------------------------------------------------------------------------------------------------------------------------------------------------------------------------------------------------------------------------------------------

<p>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11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2일(토) 오후 3시</p>	<p>티켓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문의 031-783-8000</p>
------------------------------------------------------------------------------	----------------------------------------------------------------------

Q	Monthly Guide
	<p>마티네 콘서트 10월, 11월</p> <p>2024년 <마티네 콘서트>는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라는 주제 아래 체코 출신, 또 체코와 인연이 깊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10월 17일 '바로크 교회 음악의 꽃, 젤렌카' 편에서는 당시 유럽 음악의 중심지 드레스덴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 준 젤렌카의 걸작 <미사 보티바>를, '아메리카의 보헤미안'을 주제로 한 11월에는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마르티누의 협주곡과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감상할 수 있다.</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10월 17일(목), 11월 21일(목) 오전 11시</p>	<p>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p>
-------------------------------------------------------------------------	-------------------------------------------------------

	<p>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p> <p>2019년 두산아트센터에서 초연된 이자람의 판소리 <노인과 바다>는 이후 30회 넘게 재연되며 사랑받아 온 작품이다. 대문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원작으로 이자람이 작, 작창을 담당했다. 바다로 나간 노인 '산티아고'가 긴 씨름 끝에 청새치를 잡지만 상어에게 모두 뺏기고 허탈하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자람의 생기 가득한 열연으로 오늘날의 관객에게 생생히 다가온다.</p>
---------------------------------------------------------------------------------------	----------------------------------------------------------------------------------------------------------------------------------------------------------------------------------------------------------------------------------------------------------------------

<p>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10월 5일(토) 오후 5시</p>	<p>티켓 R석 40,000원, S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p>
-------------------------------------------------------------	-------------------------------------------------------------------

	<p>🔍 Monthly Guide</p>		<p>🔍 Monthly Guide</p>	
	 <p>성남아트rium 뮤지컬 캠프 <드림 온 스테이지> 성남시민을 위한 재능 발굴 뮤지컬 캠프, <드림 온 스테이지>가 3개월의 워크숍 결과를 담아낸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지난 6월 만 18세 이상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30여 명의 뮤지컬 배우 과정 참여자를 선발, 3개월 간 신시컴퍼니 박명성 프로듀서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 제작진에게 주 2회 트레이닝을 거쳤다. 각기 다른 배경에서 뮤지컬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뭉친 아름다운 결과물!</p>		 <p>창작 주크박스 뮤지컬 <Dear, My 파더> 배우 선우재덕이 제작자 겸 배우로 참여하는 창작 주크박스 뮤지컬 <디어 마이 파더>가 찾아온다. 가족에 일생을 바친 아버지 준구와 자유로운 영혼의 아들 인범이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린 작품으로, '우리 사랑 이대로' '여행을 떠나요' '말 달리지'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명곡이 감동을 더한다. 선우재덕, SS501 출신의 배우 김형준, 임성연, 김나희 등 인기 캐스트가 함께한다.</p>	
<p>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10월 26일(토) 오후 5시</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24-6205</p>		<p>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11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2일(토) 3시/7시 30분, 3일(일) 2시/6시</p> <p>티켓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문의 031-708-6271</p>	
	 <p>성남아트리움 콘서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여자는 다 그래'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매력적인 희극 오페라,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가 성남아트리움에 찾아온다. 말 그대로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이는 콘서트 오페라는 음악에는 집중하되 무대와 세트 등은 간소화해 합리적인 가격의 티켓으로 선보이는 일종의 '라이트 버전' 오페라. 음악과 연기는 수준 높은 완성도를 고스란히 담아 오페라 초보자와 애호가 모두를 아우를 예정이다.</p>		 <p>2024 성남작가조명전 4 <고혜숙: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수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이 올해 네 번째 전시로 <고혜숙: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를 선보인다. 비가시적 존재, 형태의 자연성과 불완전성, 여백의 존재성, 관계성 등 다양한 주제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하나의 견고한 미의식'을 작품에 투영해 온 고희숙 작가의 40여 년 작업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p>	
<p>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11월 23일(토) 오후 5시</p>	<p>티켓 R석 4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8월 30일(금)~10월 20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Monthly Guide	
	 <p>2024 성남작가조명전 5 <서수영: HERITAGE CODE> '성남작가조명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섯 번째 전시는 <서수영: HERITAGE CODE>다. 동시대에도 통용되는 '한국미의 근원'을 찾기 위해, 미술사적 가치가 인정된 국보급 문화재 작품을 작업 주제로 오마주hommage하며 한국미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서수영 작가의 대표작 30여 점과 신작 6점을 감상할 수 있다.</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11월 1일(금)~12월 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p>2024 지역예술가교류전 <춤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 성남큐브미술관은 타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동시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갖고자 '지역예술가교류전'을 기획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과 공동 기획으로 성남 지역의 강건·이정희·김래현 작가, 부산의 김미래·이영아·정찬일 작가, 전주의 김성수·이가림·조민지 작가까지, 다양한 매체와 주제로 활동하는 9명의 청년 작가를 소개한다.</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11월 1일(금)~12월 1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You Quiz? Art Quiz!

문.재.아.가 간다

재미있게 풀어 보는 알쏭달쏭 문화예술 탐구역역 <문.재.아.>



10월 4일, 성남문화재단 유튜브에서 만나요!

문화예술이 어찌지 어렵고 지루하다?
예술과 친해지는 꿀팁,
<문.재.아.>가 바로 떠먹여 드립니다!

문화예술 초보자도, 덕후도 모두 모여라!
 성남 곳곳을 찾아가 문화예술 퀴즈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식 토크쇼, <문.재.아.>가 10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성남문화재단 유튜브를 찾아옵니다.

두구두구! 대망의 1회 촬영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서 예술중학교 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시민들과 유쾌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
 모두 기대 이상의 텐션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편집이 힘들었을 정도라고 하네요(소곤소곤).

10월 11일 업로드되는 2회는
 무려 초인기 아트 셀럽의 깜짝 특강!
 방송과 유튜브를 중흥무진하시는 국내 미술계의 셀럽,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 양정무 교수님의 특별 과외, '미술을 일상에서 즐기는 방법'이 찾아갑니다. 아직은 문화예술이 어렵지만 한 두 진행자, 크리에이터 이소유·이상학 MC는 <문.재.아.>를 통해 문화예술 지식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두 MC가 앞으로 성남 어디에 나타날지, 뜻밖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바로가기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이사 선임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이하 한지총) 이사로 선임됐다. 한지총은 전국광역문화재단 협의체인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17개 광역문화재단)와 (사)전국지역문화

재단연합회(124개 기초문화재단)의 통합법인으로 지난 8월 22일(목),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노력 동참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번 한지총의 설립을 위해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역문화재단 대표자 간 간담회에서 광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 두 연합회의 통합법인 법제화를 제안했고,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두 연합회의 사무처가 통합법인 설립을 구체화해 왔다.

총 8명의 초대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된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국의 문화재단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단체에 초대 이사로 선임되어 책임이 무겁다”면서 “앞으로 지역 문화재단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화재단,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업무협약 체결

성남문화재단이 롯데백화점 분당점(점장 김현우)과 문화예술 자원 교류와 홍보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과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지난 8월 9일(금), 성남아트센터에서 서정림 대표이사와 3개 본부장, 김현우 롯데백화점 분당점 점장, 김동욱 영업기획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공연·전시 홍보 상호 협력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공동 개

발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양 기관 상호발전 증진 등을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재단이 백화점 내에서 문화공연이나 전시 진행 시 장소를 제공하고, 광고 채널을 통한 홍보 등을 협력하며 양 기관 우수고객을 위한 상호우대 등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의사를 밝혔다.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문화예술 기관과 지역 내 기업의 긴밀한 문화 소통으로 탄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예술을 사랑하는 성남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헤미안의 소풍과 꿈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 2024년 3월~12월(총10회) ● 매일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0월 17일 (목) 11시
● 바르크 교회 음악의 꽃, 젤렌카 ●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지휘 김선아

젤렌카 <미사 보티바>

11월 21일 (목) 11시
● 아메리카의 보헤미안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최수열, 오보에 함경

마르티누 오보에 협주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E단조 '신세계로부터'

성남문화재단, 2024 성남페스티벌 'AI 활용 대표 캐릭터 공모전' 시상

성남문화재단이 10월 5일(토)부터 펼쳐질 2024 성남 페스티벌을 앞두고 AI 활용 대표 캐릭터 공모를 진행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생성하거나 생성 후 수정·보완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8월 2일 공모를 진행해 총 65개 작품이 접수,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심사를 거친 10개 작품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최종 선정작을 결정. 성남의 숲을 날아다니며 노는 자연 친화적인 로봇을 상징하는 '카이로'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는 8월 27일 성남미디어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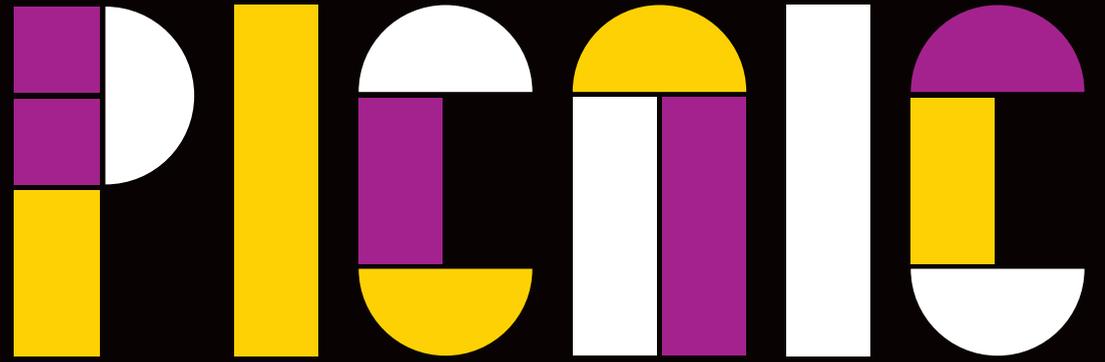


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성남의 대표 축제로 성장해 나가는 성남페스티벌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라며,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참신한 캐릭터들로 첨단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성남페스티벌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록의 감성에 취하다, 2024 피크닉 콘서트

성남문화재단의 브랜드 공연 <피크닉 콘서트>가 가을에도 성남페스티벌과 더불어 관객을 찾아온다.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시민들의 인근 공간을 활용, 집 가까이에서 피크닉처럼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콘서트>는 그동안 7080 명가수부터 아이돌까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출연진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10월 8일(화) 을지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피크닉 콘서트는 전인권밴드와 부활이 출연, 대한민국 대표 록 밴드의 뜨거운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정보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착순 무료 입장.



피크닉 콘서트
전인권 밴드 X 부활
2024.10.8.TUE 7:30PM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운동장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단천회원
강영귀/김연경 김진명/심정자 서창우/석남연 이노엘 대표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언우보험대리점 대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태평영전 회장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주)신성이앤지 회장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손경호/이동순 손일선/김상일 안봉혁/어윤경 이완근/홍은희 이재환/한정의 정대혁/김대원

칠죽회원
김부경/김모민 김상환/오다영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아람휴비스(주) CEO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리프 대표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평아트옥션 이사

단천회원
박 철/하정진 여영동/이육자 故최계순/김순자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前 (주)너스 회장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칠죽회원
강정환/정병태 강효주/이동연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회분과위원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김동술/민인선 김명자/이승오 김문기/김인숙 김연태/이주숙 김영수/원종순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주)금화 대표이사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김중헌/정승희 김진환/이화용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장형환/임경희 전명자/김정길 정성조/심윤경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세일기공(주) 대표 성남FM방송국 대표 모란새로운악곡 대표 / 명당환의원 한의사 前 국립서울병의원장 / 서양화가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미술단체 <線과 색> 前 명예회장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재단 이사장 패션그룹형지 회장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주)삼화 F&F 회장 (주)기림산업 대표이사 회장 前 상이제약 회장 / 수필가 (주)케이씨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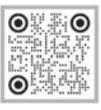
정승립/한정복 정용석/이승설 정은경/박민걸 정은기/박은숙 정인택/유경희 조남주/이규철 최병주/박인수 최병오/박종길 최은희/연형모 한병무/최정자 허용무/구은희 故 허 침/홍애자 황광석/조영순

정은기/박은숙 정인택/유경희 조남주/이규철 최병주/박인수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성남아트센터 2025년도 정기대관 공고



오페라하우스

세계적 수준의 무대시설을 갖춘 1,808석 규모의 다목적 복합 공연장.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종합구성물을 비롯, 클래식 콘서트까지 모든 공연예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다. 기본 잔향을 1.6초부터 3초까지 조정, 객석에서 최적의 음향을 감상할 수 있다.



콘서트홀

클래식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순수음악 공연을 위한 1,102석 규모의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형상의 아름다운 외관, 쾌적하고 안락한 감상이 가능하도록 무대막이 없는 아레나형 무대가 특징이다.



앙상블시어터

연극, 리사이틀, 실험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378석의 복합공연장. 객석으로 돌출하는 T자형 무대장치, 주무대의 회전장치 등으로 무대와 청중이 함께 호흡하는 관객친화적 연출이 가능하다.

대관시설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 콘서트홀은 클래식 콘서트 전용홀로 종합구성물의 공연은 대관하지 않음
* 관객을 위한 공연물이 아닌 일반 행사는 대관하지 않음

신청안내

* 접수기간 2024년 9월 27일(금)~10월 18일(금)

* 접수방법 성남아트센터 온라인 대관시스템(snart.or.kr/rental), 이메일/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온라인 대관신청서(소정 양식) 1부
- 공연계획서(공연 참고자료, 홍보 영상물 혹은 사진 등) 자유양식 1부
- 출연자(또는 단체) 계약서 혹은 증빙자료 사본 1부
- 출연자(또는 단체) 및 공연 주최사 약력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대표자의 프로필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대관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성남아트센터 기획공연 및 무대 점검 기간 제외
- * 매주 월요일 휴관
- * 내부 사정에 따라 대관 가능일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 rental@snart.or.kr
- * 오페라하우스 031-783-8042
- * 콘서트홀 031-783-8046
- * 앙상블시어터 031-783-8066

www.snart.or.kr